

독립정신

68호

2013년 3, 4월호

(원형복원된 경교장)



독립운동사의 재조명
- "죽으려면 혼자 죽어라"

부부 독립운동가 열전
- 김학규와 오광심

종교 속의 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만주에서의 청림교와 원종교의 항일운동

분노와 고통을 가슴에 품은 채, 오롯이 민족과 나라를 위했던
그 숭고한 희생은 겨레의 찬란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 등불을 더욱 밝게 비출 수 있는 자랑스러운 후손이 되겠습니다.

2012년 7월 21일

제 8기 독립정신 답사단 '진기로예 열사능원' 에서



단재의 조선혁명선언을 읽는 밤

홍 일 선

아주 캄캄한 하늘
나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꿈 하늘
이순 흘쩍 넘기고서도
더는 어찌할 수 없는
참회의 시간 어디쯤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가야할 길
너무나도 아득하고 지엄하여서
참으로 승구하여 몸 들 바 몰랐는데
어머니들께서 정화수 떠놓고
한 세월 우러러 두 손 모았던
북두칠성 막내 꼬맹등이
별 하나이 우두커니 남아
온몸이 아프신 남한강
외롭게 지켜 주시는 시간에
단재 신채호 전집
조선혁명선언 읽는 밤

나 차마 정숙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민중 민중이라는 말씀들
빛바랜 책속에서
뚜벅뚜벅 걸어나오셨는데
2012년 12월 19일
악몽에 붙들린 지 한 달 여 되는 날
나 오늘 조선혁명선언
아주 느리게 떠듬떠듬 읽어야 했다

남한강 가쁜 숨소리 너머
다카기 마사오가 옳았다고
시월유신이 옳았다고 우기는 오늘
북두칠성 두 눈으로 바로 볼 수 없어
1923년 1월 꿈 하늘 불러내
조선혁명선언 친견하는 밤

오늘 바로 오늘
구십년 전 그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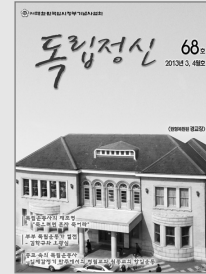
■ 시 선정 : 홍일선(시인, 한국문학평화포럼 회장)
1950년 경기 화성 출생 1980년 창작과 비평으로 등단.
시집 : 『농토의 역사』, 『한 알의 종자가 조국을 바꾸리라』, 『흙의 경전』
여주 남한강 어름에서 농부로 살아가고 있음

독립정신

2013 3*4

통권 68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으려 합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신명식, 이학노, 김지용, 곽태원, 이상준, 이일선, 김용수, 안호진
편집·디자인 | 대관인쇄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04 권두언
'정전체제 60년, 틀을 바꿔야 산다'
| 한 승 동



09 독립운동사의 재조명_두번째
"죽으려면 혼자 죽어라"
| 안 재 성

16 부부 독립운동가 열전_두번째
김학규와 오광심
| 김광재

23 종교 속의 독립운동_
일제강점기 만주에서의
청림교와 원종교의 항일운동
| 이 찬 구



32 다시보는 좋은 기사_
獨 메르켈, "나치 범죄 영원한 책임"
| 이 슬

35 100년 편지_
항일전선의 최고령 노(老)투사 강우규 의사
| 정 운 현

40 영화읽기_
영화 <아르고>,
달한 미국과 불가능한 탈출
| 이 두 희

45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열전_세번째
독립운동가 3대 지켜 낸 겨레의 딸,
아내 그리고 어머니 "김 락"
| 이 윤 옥

47 임정서거_
지금 동아시아를 읽는다
독부 이승만 평전
나는 여성독립운동가입니다
| 편집부

57 독립정신 이모저모



42



57



58

‘정전체제 60년, 틀을 바꿔야 산다’



한 승 동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올해로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년이 됐다. 전쟁 종결이 아니라 잠정 중단 상태로, 사실상 60년이 되도록 전쟁상태를 계속한 사례가 이 지구상에 달리 있는지 모르겠다. 잠시 다녀오 마고 나갔던 가족의 일부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채 살아 있으면서도 60년이 넘도록 만나 볼 수도 없는 기막힌 비극의 주인공들이 ‘1천만’이나 되는 이상한 세계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데도 세상은 어찌보면 너무나 조용하고 태평스럽다. 단 한명일지라도 자국 전사자 유해한 구를 찾기 위해 온 국력을 기울인다는 미국적 정의에 찬사를 보내는 이땅의 사람들은 1천만의 이 기묘한 비극의 자국 희생자들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국의 책임과 죄과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 것일까.

이 터무니없는 비극은 얼마 전 북의 제3차 핵실험이라는 위험하고 무모한 이벤트를 통해 재확인됐지만, 그 이벤트를 둘러싼 쌍방의 요란한 공방에 가려져 비극 자체와 그 본질은 오히려 어두컴컴한 뒷방에 감춰지고 유폐됐다.

따지고 보면, 비극의 출발은 잘못 그은 분단선 때문이었다. 2차대전 뒤의 분단선은 원래 전승국들이 패전국들에 강요한 일종의 징벌적 조치였다. 독일의 분단이 그랬다. 스탈린이

소련의 홋카이도 점령을 미국에 요구했듯이, 또 하나의 패전국 일본 역시 그럴 운명에 놓여 있었다. 전승국들이 주장하는 ‘역사적 정의’라는 게 정말 있다면, 분단당할 나라는 조선을 유린하고 수천만 동아시아인들을 희생시킨 제국주의 침략 전범국 일본이 돼야 마땅했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이 일본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 그것을 거부했다. 대신 엉뚱하게도 일제 식민지배의 최대 피해국 조선 땅을 반으로 갈라버렸다. 오히려 전범국 일본은 미국 냉전 전략의 핵심 교두보로 육성되면서 전쟁까지 치러야 했던 한반도의 비참을 전후재건의 발판으로 삼아 ‘기적의 고도성장’이라는 찬사 속에 번영을 구가했다. 분단된 절반인 남쪽은 그런 일본과 미-일 동맹을 지켜주는 최전방 기지가 돼야 했으며, 그에 맞서 여전히 남쪽과 전쟁 상태인 북쪽 절반은 기괴한 세습체제하에 굶주림과 억압이 일상화된 동토의 땅이 됐다.

이제 100년이 다 돼가는 저 기미년의 전 민족적 항일 봉기와 임시정부를 이끈 선조들이 바란 나라가 이런 나라는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분단에서 발원되고 6.25전쟁을 통해 자리 잡은 정전협정체제가 어떻게 60년 세월이 넘도록 유지될 수 있었을까. 지금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바꾸자고 요구하는 쪽은 북이다. 이유가 어찌됐건 평화협정을 맺고 전쟁을 종결하자는 주장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북은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노릴 것이다. 우선은 체제보장이다. 생존시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지만, 북은 남북통일 뒤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걸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걸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그들의 속내에 가까워 보인다. 미국이 체제보장만 해준다면 미군주둔까지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다.

남쪽은 왜 평화협정체제를 꺼리는가. 거의 유일한 이유는 이땅에 미군을 붙잡아두기 위한 것이리라. 전쟁이 종결되고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할 이유가 없어진다.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할 정세변동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포함한 주일 미군 전체도 철수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세계여론이나 미국 국내여론이 그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지배세력은 그런 사태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보수 지배세력 생각 또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면 부와 소득이 많게는 북쪽의 수십배나 된다는 남쪽의 성공이라는 게 얼마나 기형적이고 취약한 것인가. 그 막대한 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초라한 북의 공세를 막기 위해 60년 이상 외국군을 자기 땅에 붙들어 놓고 있어야 하는 나라. 이 또한 결국은 남쪽 체제보장을 위해서가 아닌가. 남북 어느쪽도 외부 힘의 개입 없이는 자신들의 체제안위를 확신할 수 없어 남에게 매달리는 이 기묘한 상태가 6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초 냉전이 무너지고 당시 소련과 중국이 한국을 승인했을 때 왜 미국과 일본은

북을 승인하지 않았을까. 유엔 동시가입까지 성사된 마당에 주요 냉전 당사국들의 남북 교차승인이 오히려 자연스런 귀결이 아니었을까. 주변 대국들 상호보장하의 교차승인이 이뤄졌다면 정전체제도 자동 해소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때 그렇게 해서 미국이 북과의 관계를 정상화했다면 북이 핵 개발에 저토록 집착했을까.

1994년 제네바 북핵 합의 때, 북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이 북에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약속한 것은 북 체제가 오래 못 가 무너질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미국 쪽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1989년 동베를린 장벽 붕괴와 천안문 사건이 터진 뒤 1991년엔 소련이 무너진 상황이었으니 그럴만도 했겠다. 조지 부시의 공화당이 집권하면서 미국은 본색을 드러냈고 북은 그때부터 핵개발에 체제생존의 모든 것을 걸었다. 아프간이나 이라크의 후세인체제, 리비아의 카다피 체제가 미국·서방의 개입 속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지켜 본 그들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브루스 커밍스가 북의 핵개발이 결과적으로 부시가 가져다 준 폭탄(Bush's Bomb)이라고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남북분단과 대결을 대립 축으로 한 동아시아의 반세기 넘긴 세력 대치구조, 2차 대전 뒤 미국이 판을 짰던 냉전구조의 최대 수혜자가 일본이고, 최대 피해자가 남북한이라는 기구한 역설. 거꾸로 얘기하면, 이 구조가 지속되는 한 수혜자는 일본이 될 수밖에 없고 피해자는 계속 한반도가 될 수밖에 없다. 남쪽의 경제적 성공을 들어 한반도 남쪽 역시 수혜자인양 얘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그런 주장은 분단과 그로 인한 처참한 전쟁, 수천만 북쪽 동족의 굶주림과 비참을 대가로 한 것이라는 데엔 눈을 감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언제나 대결의 최전방에 서서 동족상잔하며 주변 이민족들에 기대어 그들의 하부종속 플레이 어로서 그들만 살피우는 이 고약하고 고질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를 계속 용인하자는 얘기다.

정전협정 60년. 3세대가 흘러간 긴 세월이 완전히 적응해버린 탓인지 우리 내부에선 이 기묘한 정전협정체제와 그것을 시발로 한 동아시아의 낡은 냉전적 대립구도를 정면으로 문제삼는 소리들이 거의 없다.

삐걱거리는 소리는 바깥에서 들려오고 있다.

지난해 말 일본 총선에서 2007년에 총리가 됐다가 1년만에 물러났던 아베 신조가 자민당의 압승과 함께재집권하고 극우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 지사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일본유신회'를 만들어 이른바 '제3극'으로 등장했다. 이로써 하토야마 유키오 등 리버럴 세력이 주도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와 그들이 시도했던 탈냉전적 일본 재생의 꿈은

좌절됐다. 일본 리버럴 세력은 미국의 준 식민지라 불린 일본의 대미종속구조와 신자유주의를 탈피해 대등한 우애의 공동체를 지향하겠다고 아시아 중시를 표방했다. 이는 2차대전 이후 재편된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과 미-일 동맹이 주축을 이룬 팍스아메리카나 체제가 저물고 거대중국이 기존체제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로 떠오른 정세변동에 대처하려는 나름의 전향적 대응방식이었다. 중국과 한국 등 새로운 동아시아를 중시하는 일본의 아시아 복귀 없이 일본에게 출구는 없다고 그들은 판단했다. 이미 중국의 대두는 대세였고 일본의 제1 교역대상국도 중국이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후 팍스아메리카나체제의 수혜자로 광고한 기득권자가 돼버린 일본과 미국 보수주류는 이에 거칠게 저항했고, 오키나와 후텐마 미 해병대기지 이전문제 등을 둘러싼 이들과의 힘겨루기에서 하토야마의 민주당은 패배하고 좌절했다. 게다가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태까지 터졌다.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문제도 그 와중에 증폭됐다. 최근의 다오위다오 사태는 극우 이시하라 신타로가 도쿄도 지사 시절 미국에 가서 개인소유로 돼 있던 센카쿠 열도를 도쿄도가 구입해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한 데서 발단이 됐다. 이것 역시 '천하대란'으로 비유될 수 있는 새로운 정세변동이 불러일으킨 일본 우파들의 초조와 불안을 반영한다. 일본 내셔널리즘을 자극한 다오위다오 사태는 전망이 보이지 않는 장기불황과 국력의 상대적 위축, 민주당 정권의 무능에 절망한 유권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보수우파들을 결집시켰다. 아베의 복귀는 다수 유권자들의 무관심(압승한 자민당 득표율은 전체 유권자의 25%밖에 되지 않았다) 속에 강한 일본, '영광의 일본' 재건을 바라는 막연한 보수우파 정서 덕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베와 아소 다로와 이시하라와 하시모토가 꿈꾸는 강한 일본의 꿈은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다. 센카쿠와 다케시마(독도)와 쿠릴열도 남단 4개 섬(북방영토)에 집착하는 그들 보수우파의 전략은 이런 영토적 집착이 상징하듯 퇴행적이며, 기득권 고수 내지 재탈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명백히 일본이 강자로 군림했던, 이미 복원이 불가능한 옛 질서, 옛 구도로의 복귀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일본 쇠퇴는 민주당 정권 때가 아니라 자민당 집권 때부터 이미 시작됐다. 2009년에 '55년 보수합동'의 자민당 장기집권체제가 무너진 사실이 그것을 웅변한다.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협력자로 붙어 이익을 나눠 갖는 기존 동아시아 세력구도를 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자가 바로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였다. 1930년대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 총무청 차장으로 만주국을 사실상 설계하고 만들었다는 그는 미국과 전쟁을 벌인 도조 히데키 전쟁내각의 각료로 A급 전범이었으나 미국 덕에 살아남아 자민당 장기

집권의 틀을 놓은 1955년 보수합동을 주도했고 1960년 미-일 안보동맹 강화에서도 주역을 맡았다. 아베의 정치적 이상형이 바로 기시다.

과거로의 회귀, '영광의 제국 일본'으로의 반동적 복고를 꿈꾸는 일본 보수우익은 북을 '악의 축'으로 설정한 채 남북 분단선을 동아시아 전체의 분단선으로 확대한 새로운 냉전체제를 꿈꾸고 있는 것 같다. 이 반동·복고의 또 다른 한 축은 미국과의 유착, 즉 친미 강화다. 이 기본구도는 새로운 게 없다. 크게 보면 지난 100년 동안 지속돼 온 구조다.

이제 이 구조가 삐걱거리고 있다. 일본 보수우익 세력이 새삼스럽게 반동·복고를 부르짖고 퇴출당했던 자민당이 복귀하는 이상증세 자체가 이 삐걱거림에 대한 불안과 초조를 반영한다. 근대의 기린아로 한때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군림했던 일본의 세기는 팍스아메리카나의 황혼과 함께 끝나가고 있다. 아니 끝내야 한다. 그것은 곧 역사상 유례없는 길고 기묘한 한반도 정전협정체제도 끝나가고 있다는 전망을 갖게 한다. 문제는 미-일동맹을 근간으로 한 팍스아메리카나 체제에 대한 우리 내부의 과잉적응 세력이다. 이 구조 속에서 기득권을 누려 온 세력은 60년을 넘긴 한반도 정전체제의 해체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게 '쇄국'이다.

쇄국이란 말은 재해석돼야 한다. 예컨대 한-미 FTA에 반대하는 게 쇄국이 아니다. 기득권에 집착하면서 그 기득권을 안겨 준 기성체제를 고수함으로써 급변하는 안팎의 정세변동에 대한 기민한 대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움직임이야말로 쇄국이다. 비록 그들이 대외적으로 문을 활짝 열자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기성체제와 구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편입돼 그들과 일체가 되자는 걸 의미한다면, 그리하여 그들 소수 기득권층은 더 큰 수혜자가 되겠지만 다수 대중은 피해자가 되는 걸 의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쇄국이다. 그렇다고 미국과 관계를 끊자거나 반미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비판이 곧 반미는 아니다. 미국과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한-미동맹을 당장 해체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 내용을 쇄신해야 한다. 

“ 죽으려면 혼자 죽어라 ” : 경성트로이카의 마지막 생존자들



안재성
소설가

1. 노동운동이 왜 독립운동인가?

정부는 해방 후 60년이 지나서야 일제하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운동가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성트로이카 사건 관련자들이었다. 1930년대 중반, 경성 일대에서 8건의 공장파업과 5건의 동맹휴학을 일으켜 160여 명이 구속되고 1천여 명이 조사받은 큰 사건으로, 조직의 지도자였던 이재유와 생존자인 이효정에게 유공자 표창을 하고 서대문 역사박물관, 독립기념관 등에 부스까지 만들어 그 내용을 기록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주의를 지향한 노동운동이 왜 독립운동에 포함되는가 의문을 가진 이들이 많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투쟁이 독립운동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 경성트로이카 일원, 여성 독립운동가 故 이효정 선생님의 젊은 시절 모습(좌)과 2006년 모습(우).

당대 사회주의자들의 제1의 목표는 조선의 독립이요, 제2의 목표는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정부 수립이었다. 모든 토지와 공장을 국가가 소유하고 완벽한 복지제도를 갖춘 사회주의가 그들의 최종목표이었던 건 분명하지만, 식민지 상황에서는 떠나면 꿈이었다. 그들은 독립을 위해 싸우되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을 기초로 삼았던 것이다.

남북이 분단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에서 그러하듯 합법적인 공산당 또는 사회당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복지 확대와 평등 정책 강화에 애쓰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성 혹은 반대로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것이다.

2. 그들은 무엇을 주장했나?

“일 년 단위 계약제의 반대”

“자본가적 산업합리화 반대”

“하루 7시간 노동제, 주당 40시간 노동”

“아내 있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제 확립”

“자본가 부담의 실업, 질병, 재해, 사망 보험 실시”

“외국인 노동에 대한 차별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어디서 많이 들어 본 구호들 아닌가? 간단히 표현하자면 비정규직 반대, 정리해고 반대, 주5일 근무제, 최저임금제, 의료보험, 국민연금, 실업보험, 외국인 차별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등, 제정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요즘까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다. 1935년 경성트로이카에서 발행한 <적기> 제1호에 실린 구호이다.

같은 잡지에서 그들은 정치적인 구호로 일제타도와 의회제도 도입, 조선어와 조선역사 교육 강화 등을 내세우는데, 제 요구를 합쳐보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노동법의 근간을 차지한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먼 훗날의 목표로 어떤 꿈을 꾸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독립운동가 중에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던 이들도 있고 왕정으로 복귀하려던 이도 있었으나 그것 때문에 항일투쟁이 무효화되는 건 아니다. 일제하 사회주의자들은 단순한 독립을 넘어서, 조선의 민중들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생각하던, 최소한 반세기를 앞선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좋으리라.

대한민국의 법률들이 사회주의자들의 주장과 겹친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 아니다. 정치 선진국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자본주의가 개인의 자유 보장에 치우쳐 극단적인 불평등을 낳는다면 사회주의는 만인의 평등을 앞세우다 보니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무슨 주의라는 이름을 붙이든 상관없이, 자유와 공익이라는 두 명제는 지금까지 인류를 이끌어온 원동력인 동시에 갈등의 원인이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고민이 될 것이다. 다만, 얼마나 평화롭게, 민주적으로 이 갈등을 해결해 내느냐가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름할 것이다.

3. 피에 절은 바지

“남자 유치장 앞을 지나는데 누가 나를 부르는 거야. 병희야, 병희야 하고. 돌아보니까 철

창 안에 이재유가 앉아 있어. 내가 소리치며 좋아서 반가워하니깐 이재유도 웃으며 일어나는데 앉았던 자리에 피가 흥건한 거야. 바지가 전부 피에 절었어. 너무 끔찍했어.”

이재유가 이끄는 경성트로이카가 주도한 1933년의 종연방직 파업의 현장 주동자이던 여성노동자 이병희의 증언이다. 4백 명의 여성노동자가 참가한 종연방직 파업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며 관심을 끌었고 40여 명의 구속자를 낳는다. 이 파업을 외부에서 담당한 이는 이효정이었고 다시 이를 지도한 이는 훗날 남부군 사령관이 되는 이현상이었다.

이현상은 어떤 사람인가? 일제는 경성의 골목마다 감시자를 두어 젊은이가 세 명만 모여도 경찰을 부르게 했다. 단 둘이 만나는 게 제일 안전했다. 낮에는 둘이 걸어가며 회의를 하고, 밤에는 남몰래 방에 찾아가 단 둘이 교육과 회의를 진행했다. 남자가 여자 방에 들어가 밤샘 토론을 하는 일도 잦았다. 동대문 일대 현장책임자들을 지도하는 일을 맡은 이현상은 대단히 존경받는 지도자였다고 한다. 큰 키에 큰 눈을 가진 서구형 미인이던 이효정의 증언이다.

“이현상은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동덕여고 다닐 때부터 남자들로부터 편지도 많이 받고 운동을 하면서도 구애를 자주 받았습시다. 그런데 이현상은 내 방에 찾아와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의문스런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점잖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지요.”

당연히 가명을 썼기 때문에 이효정은 이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가 이현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빨치산 대장이 이현상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같은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 점잖고 지적인 인물과 무서운 빨치산대장이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효정은 한참이나 울었다.

4. 마지막 생존자들

경성트로이카의 주역들은 대부분 불행하게 죽어간다. 지도자였던 이재유는 일제의 패망을 열 달 앞두고 감옥에서 병사한다. 동대문 일대 여공들과 여학생들에게 널리 인기가 있었던 이현상은 지리산에서 총에 맞아 죽는다. 김삼룡은 남로당 책임자로 체포되어 처형된 반면,



▲ 이재유의 체포를 1면에 크게 다룬 <경성일보> 1937년 4월 30일자 호의 기사. 당시 이재유를 검거한 서대문 경찰서는 축제 분위기였다고 한다.

경성제대 수재로 유명했던 정태식은 북에 올라갔다가 숙청되고 만다. 극단적이고 기계적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남북의 정권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에게 양보할 지분이 없었을 것이다.

최근까지 살아남았던 이는 이효정과 이병희 두 사람이었다. 종고모와 조카 사이인 이들은 일제시절 한 집에 살며 함께 노동운동을 했다. 이 집에는 역시 근친인 이육사와 이원조 형제, 이동하와 이병기 부자 등 당대의 항일운동가들이 살다시피 했다. 해방 이후까지 합쳐 정치적 사건으로 죽은 이 집안 어른들의 숫자는 열 손가락에 꼽아야 한다.

이효정은 동덕여고 재학시절 전국 서예대회에서 우승해 동아일보에 전면으로 실린 재원이었다. 종연방직 파업을 지도한 죄로 1년여 감옥살이를 하는 등 수차례 경찰에 끌려가 고초를 치렀다. 역시 항일운동을 했던 박수복과 결혼했는데 해방 후 친일파 세상이 되는 데 분노한 남편이 월북하는 바람에 친일경찰들에게 모진 고문을 당해 팔이 부러지기도 한다. 남편의 월북으로 평생 감시를 받으며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그녀는 2년 전 99살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인천 부평의 초라한 소형 연립에서 극빈자로 살았다.

마지막 생존자이던 이병희는 양반 아버지와 기생 사이에 태어난 서녀였다. 식민지 백성으로, 여성으로, 기생첩의 딸로서 삼중의 굴레를 안은 그녀는 일찍부터 반항의식이 성장해 16살에 종연방직 파업을 맨 앞에서 이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혼방이 되었으나 계속해서 노동운동에 앞장서 3년 후 다시 체포되어 4년 간 옥살이를 한다. 그리고 삼촌인 이육사가 의열단원을 모집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나자 동행했다가 북경에서 함께 체포되고 만다. 체포되는 날의 상황에 대해 그녀는 증언한다.

“왜놈 경찰이 문을 광광 두드리는 거야. 잡히는 건 겁나지 않아. 그런데 나한테 우리 동지들의 명단이 적힌 종이가 있었거든. 나는 얼른 옷을 훌랑 벗었어. 그리고 경찰에게 옷을 입어야 하니 기다려달라고 했지. 놈들이 기다려 주더라구. 그 사이에 종이를 찢어 먹어 버렸지. 죽으려면 혼자 죽어라, 그것이 우리 집안의 가훈이었어.”



▲ 이재유, 이현상, 이주하, 이관술, 박진홍, 이효정 등


체포된 이육사는 결국 옥중에서 고문치사 당한다. 이병희는 경찰이 가족에게만 시신을 인도한다고 하자 남편이라고 기입하고 시신을 받아 매장한다. 해방 후에 결혼한 남편의 폭력과 가난에 시달리던 그녀는 90년대 말에야 이육사의 시신을 인도받은 사실이 알려져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만 작년 8월 95세로 사망할 때까지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어렵게 살았다.

5. 친일잔재의 청산을 위하여

다행인 것은 이효정과 이병희 같은 분들은 뒤늦게나마 드물게 생존한 독립운동가로서 말년을 명예롭게 보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을지라도, 최소한 유공자라는 관심을 받았으니 말이다. 대다수의 유공자와 후손들이 가난과 소외 속에 살고 있음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민족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마찬가지다.

반면, 자진해서 일제에 협력해 민족을 팔아먹던 자들 중 처형되거나 감옥살이를 한 자가 남한 땅에 단 한 명이라도 있던가? 국정교과서에 버젓이 애국자니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예술인으로 등재된 친일매국노들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도 학계, 언론계, 법조계, 정계에 우글우글한 친일매국노의 자손들이 우리 역사와 현실을 어떻게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는가? 사십년 간 수십만의 친일매국노들이 동족을 학대했는데 단 한 명도 공식적으로 처형하지 않은 나라가 무슨 민족적 긍지를 말할 수 있는가?

반일운동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친일파들도 다 죽어 버렸으니 물리적으로 청산하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문화적으로라도 반드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여 일제치하에서 죽어간 수만 명의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위로해야 한다. 해방 후에 더욱 극심해진 친일파들의 만행으로 암살된 지도자들과 집단학살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넋들을 위로해야 한다.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돌아가시고 없다. 독립운동을 돈으로만 환산함으로써 유공자 인정의 범위를 극히 까다롭게 좁혀온 현행제도를 명예제도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의병투쟁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삼일운동으로 돌아가신 분만 7,500명이고 해방 다음날 감옥에서 나온 분들이 만 명이 넘는데 독립유공자가 1만 2천명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사의 서류조건을 낮추어 보다 많은 이들이 명예를 되찾도록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정부와 보훈처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 안재성 : 소설가. 일제시대를 그린 장편소설로 <경성트로이카> <황금이삭> <연안행> 등이 있으며 <이현상평전> <박헌영평전> <이관술 1902-1950> 등 동시대의 인물평전을 썼다.

김학규와 오광심



김 광 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1931년 일제가 중국 동북지방을 점령하기 위한 ‘만주사변’ 이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던 어느 날 남만주의 한 독립군 근거지에서는 두 젊은 남녀의 조출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찍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청춘을 불사르며 생사를 같이 하던 혁명동지의 결합이었다.

김학규와 오광심 부부가 그들이다. 당시 김학규는 남만주에서 항일명장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고 오광심은 교직을 사직하고 조선혁명군의 지하공작에 투신하였었다. 치열한 항일 전장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키워가던 그들은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 그러므로써 그들은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평생의 동지이자 반려자가 되었다. 김학규와 오광심은 함께 조선혁명군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하여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하다가 일제 패망을 맞이했던 것이다. 이들 부부의 독립운동은 1930년대 만주와 관내지역, 특히 조선혁명군,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독립운동을 대변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학규는 1900년 평남 평원군에서 태어났다. 5세가 되던 해에 부친이 돌아가자 가세가 기

울어 가난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는 어린 시절을 고향에서 보내다 1910년 일제의 한국 강제 병합 이후 국외로 망명하여 구국항쟁에 나설 것을 결심하고 이갑 등을 따라 만주로 건너갔다. 1911년 12월 엄동설한에 압록강을 건너 만주 통화현에 있는 황무지 산골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도끼와 호미로 산지를 개간하고 옥수수과 콩을 심어 생계를 유지하였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경야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당시 만주 통화현 합니하와 유하현 고산자에는 일찍부터 많은 애국지사들이 독립군 기지건설에 힘을 쏟고 있었다. 1912년 가을에는 경학사의 토대 위에 부민단이 창설되었으며 1919년에 3·1운동의 영향으로 한족회라는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였다. 한족회는 모든 독립운동단체를 통합하여 중앙정부로서 군 정부를 수립하고 신흥무관학교를 통하여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다.

김학규는 1919년 신흥무관학교 속성과를 졸업하고 계속하여 1929년 동명중학교 교원 및 교장을 역임하였다. 이윽고 그는 오로지 독립운동에 뛰어들기 위해 교직을 사직하였다. 김학규는 남만주의 조선혁명당 및 조선혁명군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조선혁명군의 참모장으로서 사령관인 양세봉을 보필하면서 대일항전을 전개하였다. 조선혁명군은 중국의용군과 연합하여 홍경현 전투, 통화현 패대무 전투, 강전자 전투 등에서 승전고를 올렸다. 오광심과 결혼할 무렵 김학규는 조선혁명군 총사령 양세봉의 참모장이자 맹장으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오광심은 김학규보다 10년 늦은 1910년 3월 15일 평안북도 선천군 신부면 용건동에서 출생하였다. 어린 시절 그는 부모를 따라 남만주로 이주하였다. 남만주 홍경현 왕청문에 있는 화흥중학 부설 사범과에 입학하였다. 화흥학교는 1927년 민족주의 독립운동단체인 정의부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 학생들에게 철저한 민족주의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오광심은 이 학교에서 남다른 민족의식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오광심은 1929년 화흥학교를 졸업하고 정규 교사가 되었다. 이듬해인 1930년 통화현 반납배에 있는 초등학교인 배달학교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했다. 이 학교는 남만주의 한인자치단체이자 독립운동기관이었던 한족회에서 설립한 민족주의 학교였다. 오광심은 다음해인 1931년에는 재만 항일근거지인 유하현 삼원포에 있는 동명중학 부설 여자국민학교로 옮겨 2세 여학생들의 민족교육에 전념하였다. 동명중학은 장래 부군이 될 김학규가 교원 혹은 교장을 역임했던 학교였다. 같은 계통의 학교였으므로 이때부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알고 지냈을 것으로 보인다.

오광심은 교편생활과 아울러 독립운동단체에도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오광심은 배달학교 교사로 있을 때인 1930년 조선혁명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1931년 '만주사변'으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교직생활과 독립운동을 병행하던 오광심은 김학규가 그랬던 것처럼 교직을 사직하고 오로지 독립운동에 종사하였다. 오광심은 조선혁명당 산하 조선혁명군에도 가담하였다. 그는 조선혁명군 유격대 및 한중연합항일전에도 참여하였는데, 주로 지하연락 공작에 종사하였다.

김학규와 오광심이 부부의 연을 맺은 지 오래지 않아 김학규 부부는 관내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조선혁명군이 1931년부터 1934년까지 만주의 독립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거둔 바 있으나 막강한 일본군의 화력에 많은 희생자를 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1932년 4월 29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자리 잡고 있던 상해에서 경천동지할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폭탄의거가 발발하였다. 홍구공원 의거 이후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과 중국국민당 장개석 위원장의 합작으로 하남성 낙양에 독립군 양성을 위한 군관학교 설립이 결정되었다. 김구 주석은 연락원을 파견하여 만주에서 악전고투하는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등 독립군의 관내지역 이동을 요청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의 일부 장령들은 1933년 말 만주를 뒤로 하고 관내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물론 당초 조선혁명군은 관내지역으로의 완전한 이동보다는 관내지역 독립운동세력의 도움을 받아 만주에서 항전을 계속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조선혁명군 사령부에서는 연석회의를 열어 부족한 인력·물자를 보충받기 위하여 대표를 임시정부에 파견하여 원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임시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조선혁명당 및 군의 대표로서 김학규가 선발되어 남경에 파견되기에 이르렀다. 오광심이 부군인 김학규의 남경행에 동행하였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1934년 5월 초 김학규와 오광심 부부는 농부와 아내로 변장하고 남경으로 향하였다. 만주에서 남경으로 가는 길은 거리도 멀었지만 요소마다 적들의 감시가 있어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들은 우선 안동으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청도까지 간 후 거기서 비밀공작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임시정부를 찾아 남경에 도착하였다.

오광심은 임시정부를 찾아가는 험난한 과정에서 <님 찾아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를 지어 비장한 심정의 일단을 토로하였다.

님 찾아 가는 길

1. 비바람 세차고 눈보라 쌓여도
 님 향한 굳은 마음은 변할 길 없으라
 님 향한 굳은 마음은 변할 길 없으라
2. 어두운 밤길에 준령을 넘으며
 님 찾아 가는 이 길은 멀기만 하여라
 님 찾아 가는 이 길은 멀기만 하여라
3. 험난한 세파에 괴로움 많아도
 님 맞을 그 날 위하여 끝까지 가리라
 님 맞을 그 날 위하여 끝까지 가리라

이 노래 말 속의 '님'은 임시정부이자 나아가 조국광복을 의미하였다.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한다는 오광심의 굳건한 결의가 엿보이고 있다.

남경에 도착한 김학규와 오광심은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세력에 대해 만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선혁명군의 대일작전 상황보고와 조선혁명군에 대한 인력 및 물자 보급의 필요성과 그 긴급성을 역설하였다. 이에 대해 남경에 모여 있던 인사들은 만주 독립군의 고투에 대해 경의를 표하였다.

김학규 부부가 남경에 도착할 무렵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의열단,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 등 관내지역 독립운동진영의 효과적인 항일운동을 위하여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이라는 전선통일을 위한 기구를 두고 활동하고 있었다. 김학규로서는 관내지역 독립운동단체간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보다 효과적으로 만주의 독립군을 지원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 만큼 남경 등 관내지역의 제반 상황을 만주의 조선혁명당 본부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였다. 김학규는 본부에 제출할 장문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보고서를 가지고 만주의 당 본부에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이 임무는 부인인 오광심이 수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보고서를 휴대한 채 다시 만주로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했다. 때문에 오광심은 아예 이 보고서를 통째로 외운 다음 남경을 출발하여 만주로 향했다.

만주의 조선혁명당 본부는 오광심의 구술 보고에 대단히 만족하였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 오광심(좌) 김학규(우)

로 당본부에서는 당간부 몇 명이 흥경현 왕청문 이도구의 한 한인의 집에서 남경에 보낼 비밀 지령문을 작성하였다. 그때 변절자의 방화로 가옥이 불타면서 겨우 3명만이 살아나왔는데 오광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오광심은 천행으로 살아남았지만 심한 화상으로 3개월 동안 만주 산간의 바위굴에서 치료하였다.

1935년 1월 오광심은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몸을 이끌고 다시 남경으로 가 조선혁명당이 남경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일당 조직운동에 대한 당과 군의 비준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조선혁명당 대표 김학규와 최동오는 한국독립당, 의열단, 한국독립당 및 미주 대한인독립당의 통일전선운동에 뛰어 들었다. 그 결과 제 단체는 1935년 7월 4일 단일대당인 민족혁명당을 창설하였다.

조선혁명당 출신의 김학규는 민족혁명당 중앙집행위원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남경에서의 5당 통일운동에서 김학규의 참모이자 동지로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한 오광심은 민족혁명당에서 부녀부 차장으로 활동하였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의 발발은 한국독립운동자들에게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되었다. 중일전쟁의 개전과 더불어 임시정부는 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대일전을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하지만 일본군의 공격으로 기나긴 피난길에 오른 임시정부 대가족은 1940년 중국의 전시수도인 중경에 최종적으로 안착하게 되었다. 1932년 4월 윤봉길의거 이후 일제의 체포 위협을 피해 중국 내지를 전전하면서 자체 무력단체 창설을 준비해왔던 임시정부는 중경에서 마침내 꿈에 그리던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만주지역에서 풍부한 대일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던 김학규 부부의 역할이 빠질 수 없다.

1940년 9월 17일 이른 새벽 중경의 가릉빈관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전례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내외에서 2백여 명이 참석하였다. 총사령부 직원들을 비롯하여 김구, 홍진, 조소앙, 조완구 등 임시정부·한국독립당·임시의정원 요인들 전원이 참석하였다. 김정숙·지복영·조순옥 등의 여자 광복군 대원들도 참석하였다. 여기에는 군복을 입은 김학규 부부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광복군 총사령부 창설 직후 김학규 부부는 주로 총사령부의 사무 및 선전사업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이윽고 광복군 총사령부는 실제적인 항일운동을 펼치기 위해 전방인 섬서성 서안으로 이동하였다. 1942년에 접어들면서 김학규와 오광심 부부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임시정부 군무부는 초모공작 즉 모병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서안에서 제3지대를 편성하였다. 1942년에 접어들면서 군무부는 김학규와 오광심 등으로 하여금 서안보다 더 전선과 가까운 산동반도로 가서 초모공작을 할 것을 명하였다.


1942년 2월 김학규를 비롯한 제3지대 간부들은 징모처 제6분처라는 이름으로 서안에서 머나먼 그렇지만 조국과 가까운 산동반도를 목적지로 정하고 출발하였다. 일행 속에는 부인 오광심이 부군 김학규와 더불어 장도를 함께 했음은 물론이다. 산동반도를 향해 서안을 출발한 김학규 일행은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한 채, 그 중간지점인 안휘성 부양에 정착하고 말았다. 산동반도의 전세가 급박하여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제3지대는 1945년 일제 패망 때까지 안휘성 부양에 거점을 두고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부양은 지형상으로 일본군의 포위망 속에 있던, 그리고 일본군 점령지역과 근접해 있는 지역이었다. 때문에 적후에서의 초모공작을 전개하는 데는 더 없이 유리한 지점이기도 했다. 김학규는 제3지대 지대장, 오광심은 지대장 김학규의 참모이자 기밀 담당 비서

로서 활동하였다.

제3지대는 1944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초모공작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제3지대의 초모활동은 군무부에서도 극찬을 할 정도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군무부에서 1945년 3월말 현재 초모공작에 의해 획득된 인원을 339명으로 보고한 것으로 보면, 160여 명을 초모한 제3지대가 광복군 전체에서 획득한 인원의 약 절반을 초모한 성과를 거둔 것이었다. 처음 8명으로 출발한 것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었다. 또한 김학규 지대장과 김우전 대원의 미국측과의 교섭으로 제3지대에서도 미국 OSS와 한미연합작전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합작전이 결실을 맺기도 전에 일본이 항복하고 말았다.

갑작스런 일제의 항복은 김학규 부부에게도 통탄할 것이었다. 국내정진작전을 자력으로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던 김학규의 광복군에게는 광복군의 전열을 정비하고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교민들을 안전하게 귀국시키는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안휘성 부양에 머물고 있던 김학규와 오광심 부부는 제3지대를 이끌고 중국 제일의 국제도시 상해로 진출하였다. 김학규는 상해에 광복군총사령부 주호판사처를 설치하고 판사처 처장에 취임하였다. 오광심은 김학규를 도와 교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상해에 모여 있던 3만여 교민들을 안전하게 귀국시키는데 진력하였다.

1946년 가을에는 임시정부와 광복군총사령부의 명령으로 김학규와 오광심 부부는 상해에서 만주 심양으로 진출하였다. 그들의 만주행은 1934년 김학규 부부가 농사꾼 부부로 위장하여 관내지역으로 이동한지 12년만이었다. 김학규는 심양에서 광복군 확군활동을 하면서 교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주선하는 동안 오광심은 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심양이 중국공산당의 공세에 함락 위기에 처하던 1948년 4월이 되어서야 이들 부부는 꿈에도 그리던 조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조국에 돌아온 김학규 부부의 앞날은 평탄치 못했다. 김학규는 1949년 6월 김구 피살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고 만년에는 중풍으로 쓰러져 1967년 끝내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쳤다. 부군의 옥바라지와 병 수발로 고생하던 오광심도 1976년 생을 마감했다. 

일제강점기 만주에서의 청림교와 원종교의 항일운동



이 찬 구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기획국장

1. 식민지 시기의 만주지역 상황

1905년 『을사보호조약』의 체결 및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체결로 기존의 생계차원의 이민에 또 다른 새로운 성격의 이민이 가세하게 되면서 이민의 규모와 이민 거주 지역은 더욱 확대되었다. 망국노가 되기 싫었던 조선인들은 분분히 일어나 일제와 맞서 싸웠지만 강력한 일제의 군사적 진압으로 인해 결국 실패의 고배를 마시게 되면서 투쟁의 방향을 점차 중국만주지역 비롯한 국외로 돌리기 시작하였다. 의병을 포함한 상당수의 반일단체 및 애국지사들은 민족독립의 꿈을 품고 분분히 만주지역으로 정치망명을 선택하였으며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식량증산계획’ 등 식민정책의 실시로 땅을 잃고 파산된 상당수의 농민들도 할 수 없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만주일대로 이민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북부지역 이주민뿐만 아니라 경상·충청·전라 등 지역 사람들도 이주의 행렬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경의선·안봉선 등 철도선을 따라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점차 남만주 및 북만주지역으로 그 이주 범위를 넓혀갔다.

1911년 중국 만주지역에 이주한 조선인은 20만5천 여 명에 달했고, 1920년에는 45만9천 여 명으로, 1930년에는 60만7천 여 명으로 증가했다. 1930년의 38만8천 여 명으로 전체 조선 이주민의 64%를 차지했다.

19세기말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간도 조선인사회는 20세기 초 민족지사들의 대거 이민, 망명과 더불어 단순한 경제차원을 넘어 뚜렷한 민족성과 정치성을 띤 사회공동체로 승화하기 시작하였다.

간도조선인사회의 형성에서 종교의 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 간도조선인 이주민사회의 형성에서 벼농사가 경제적 차원에서 매개체로 되었다면 대종교,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의 전파는 사회적 차원에서 응집력이 되었다. 열악한 자연환경에서의 생존공간의 개척, 중국지방당국과의 교섭 및 조선인개간민의 제반권리신장 등은 많은 경우 종교단체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종교단체에 의한 민족교육운동의 활발한 전개와 더불어 종교단체들은 간도민족운동의 핵심적인 축으로 자리를 굳혔으며, 항일전선의 최전선을 담당하여 민족사에 찬란한 공헌을 하였다.

이 글에서는 민족종교 교단 중에 대종교, 천도교의 독립운동사는 많이 알려진 관계로 생략하고, 만주에서 독립운동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 청림교와 원종교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민족종교의 민족교육에 관해서는 덜 알려진 관계로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2. 청림교의 독립운동

청림교(靑林敎)는 동학의 한 갈래이다. 1900년 초 동학농민봉기가 일제와 조선봉건통치세력의 잔혹한 탄압으로 하여 실패된 이후 남정(호는 청림)이 최수운선생의 동학사상과 당시 민중 속에서 유행하던 예언사상을 결합하여 청림교를 창건하였다. 1904년 남정이 사망된 후 청림교는 한때 쇠락하였다.

1914년 청림교 신도들인 한병수, 태두섭, 김상설, 리옥정 등이 서울에서 청림교를 재건하고 한병수를 제2세 교주로 추대하였으며 1916년 본부를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 두계동에 옮겼다. 1926년 한병수가 사망되자 태두섭이 제3세 교주로 추대되었다. 청림교의 창교부터 항일전선에 나서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국내 문헌이 남아있지 않아 만주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청림교신도들은 용정 3.13 반일민족독립운동에 적극 참가하였

다. 1919년 후반기부터 청림교는 각지에서 젊은 신도들을 조직하여 부락별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는데 그 수가 무려 2만 명에 도달하였다.

1920년 초 임창세, 신포, 오석영, 김광숙, 윤좌형, 현기정, 지창우, 임방혁, 박송옥, 남홍운 등은 연길현 세린하 대구동에서 반일조직인 '야단'(野團)을 건립하고 임창세를 총재, 신포를 대장으로 추천하고 반일무장투쟁에 궤기하였다. 야단은 대오를 확대하기 위해 북으로는 지창우, 현기정을 연길현 일대에, 남으로는 화룡현 일대에 남홍운, 임방혁을 각기 파견하여 반일선전을 진행하여 청년신도들을 반일대오에 흡수하였으며 군자금을 모집하여 무기구입에 힘썼다. 당시 《야단》은 90여 자루의 보충에 90여명의 대오로 확대되었으며 1920년 5월 북로군정서와 연합하였는데 군사령관은 김좌진, 군사고문은 임창세였다.

민족의 번영과 조국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독립운동단체의 연합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본 단은 전 민족이 신뢰하는 대한군정서와 합병하기로 하니 전체 단원들은 분열하지 말라.

1920년 5월 20일 야단총재 임창세

이것은 야단이 북로군정서부대와 연합할 때 공포한 '선유문'의 내용이였다. 야단은 비단 북로군정서부대와 연합하여 반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림교신도들을 동원하여 각 반일독립단체에도 병력과 군수품을 공급하였다. 1920년 5월경(음력) 봉오동 전투시 청림교는 신도들을 동원하여 병력과 군수품을 지원하였으며 동년 10월 청산리 전역시에도 북로군정서와 연합하여 일제침략군을 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력과 군수품을 지원하였다.

1921년 2월 립창세, 현기정 등은 공교회와 합병하여 대성유교를 건립하였는데 그들이 대성유교를 건립한 의도는 일제의 통제에서 벗어나 중국정부에 의거하자는데 있었다.

그러나 1925년 임창세, 현기정, 남홍운, 임방혁 등은 대성유교에서 이탈하여 청림교를 회복하였다. 이때로부터 청림교는 조선의 개국신인 단군을 신앙하였다. 1928년에 영모전을 짓고 고종의 초상과 단군위패를 모시고 1936년에는 또 단군을 비롯한 역대의 조선개국시조를 신앙하면서 신도들에게 민족정신과 우수한 민족의 역사 전통을 보존, 계승하게 하였다. 이때 청림교도들은 비밀리에 '멸왜기도'(滅倭祈禱)를 드리는 것으로써 자기들의 반일민족독립의 염원을 하소연하였다. 이리하여 이 시기 반일민족독립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청림교에 가입하여 교세를 확대하였다. 멸왜기도는 국내 천도교에서도 1936년부터 시작하여 1938년(무인)에 항일차원에서 전개한 바 있다. 이는 최수운의 『동경대전』에 있는 “개같은 왜

적놈을 하늘님께 조화받아 일야에 멸하고저...”라고 한 경전구절에 따른 말로 청림교가 동학의 교단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자료이다.

청림교 독립운동에서 가장 기록에 남을 사건은 1944년 이른바 ‘청림교사건’이다.

1943년 이후 일제가 태평양전쟁에서 거듭 패배하면서 최후 발악하고 있을 때 청림교는 교주 임창세를 비롯하여 10여차나 산속에 들어가서 멀췌기도를 드리면서 신도들에게 일제의 근로봉사, 양식출하, 강제징병 등 만행을 폭로하였으며 나라를 사랑하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 왜놈과 대항하여 싸울 것을 호소하였다.

1944년 6월 교주 임창세는 신도 50여명을 거느리고 용정 서남쪽에 있는 대포산에 올라가서 ‘일제필패기원제’를 지내고 신도들에게 일제히 쫓기하여 조선독립의 봉화를 지필 것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기원자 총수는 3,000여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특히 그들은 미군이 미국에 조선에 상륙할 것인즉 미군을 영접할 준비를 하며 미국기를 만들며 자금조달, 민족독립의 봉기 등을 계획하였다.

일제는 이 시기 청림교의 활동을 인가하여주면서도 청림교를 가장 견인한 민족독립단체로 보고 그의 주요수령들을 특별요시찰인으로 삼고 감시를 계속하였다. 다른 한편 1944년 2월 룡정일본헌병분견대의 고바야시오장도 화룡현 협화회 사무장 히라다(平田修)(조선인, 본성은 주씨)에게서 청림교 활동내막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용정헌병분견대 대장 이시다 덴로와 간도헌병대 본부 사사가와 다다이찌 중좌에게 보고하였다.

확실한 증거를 파악한 일제는 1944년 12월 7일 간도헌병대 대장 사사가와 중좌와 간도성 지방보안국 국장이며 간도성경무청 청장인 고메무라 시게루의 협의하에 헌병대와 위만경찰이 공동협조하여 청림교를 일제히 검거하기로 하였으며 검거총지휘는 간도성검찰청 청장 나까무라(中村尚直)가 담당하고 헌병대지휘는 사사가와, 경찰총지휘는 간도성경무청장 고메무라, 협화회측은 간도협화회 본부 부장 구라우찌 겐조와 사무장 가마다가 책임지기로 결정하였다. 12월 10일 오후 10시부터 일제히 동원하여 검거에 들어갔는데, 이번 검거에는 중국인, 조선인 경찰은 참가시키지 않고 협화회가 검거이후의 선무사업과 선후사업을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

12월 10일 오후 10시 제1차 검거가 시작되었다. 용정, 화룡현 두도구, 연길시 구역에서 일제는 100여명의 경찰, 헌병을 동원하여 약 80여명의 청림교 반일인사들과 지지자들을 체포하였다.

제2차 검거는 1945년 5월 10일 화룡현 전반에 걸쳐 검거하였는데 이번에는 조선인, 중국인 경찰을 포함한 60여명 헌병, 경찰을 동원하여 화룡현의 두도, 동성, 광성, 이도구, 서성

과 덕화 등 6개 지구의 청림교 반일인사 40여명을 체포하였다. 이리하여 2차의 검거를 거쳐 약 120여명을 체포하여 각지의 경찰서와 헌병 분견대 유치장에 감금하고 취조를 하였다.

용정시 공안국서류 제45호 문헌에는 희생자로 이준기, 박두학, 박두홍, 최문화, 박일관, 박창을, 조영환, 장화일, 방태섭, 안창희 등 10명이고 그외에 유가족들을 통하여 판명된 희생자로는 현기정(구류소에서 혀를 물어 끊고 희생됨), 박송옥, 석화준, 지창우, 남홍윤, 임기혁 등 6명인데 그 외는 아직도 해명되지 않고 있다. 이들 16명은 모두 감옥에서 학살되었거나 또는 혹형으로 하여 석방(또는 보석)된 이후 불과 1개월도 못 되어 사망된 이들이다. 물론 그 외의 피검거자들도 혹독하게 고문, 학대당하였다.

일제는 목단강 고등법원에서 판결하기 전에 먼저 간도중급법원에서 재판하였는데 교주 임창세 이하 박송옥, 임방혁, 박두학, 남홍윤 등 5명이 사형에 언도되고 기타 투옥자 50여명은 각기 모두 장기도형에 언도되었는데, 이 중 불복상으로 1945년 3월 8일 목단강고등법원에서는 재판장 및 기타 관원을 연길법원에 파견하여 제2차 공판대회를 열고 판결하였다. 재판 결과 임창세(당시 연로하여 임시 보석중)를 무기도형, 임방혁 20년, 박두학 15년, 최진형 10년으로 판결하고 기타 골간들은 각기 7년으로부터 3년형으로 판결하였다. 판결이후 길림감옥에 압송된 이들은 박두학, 최진형, 이준기, 박창을, 최문화, 박일관, 이정수, 황현수, 김호철, 임기혁, 원용운 등이고 그 외의 도형자들은 연길감옥에 투옥되었다가 광복 이후에야 석방되었다.

결론적으로 1944년의 ‘청림교사건’은 1940년 이후에 전 동북의 일제통치중심에서 일어난 규모가 제일 큰 조선족 반일민족독립운동사건이었다. 청림교의 반일인사들은 반일을 하였다는 죄 아닌 죄명으로 일제의 암흑한 철창 속에서 온갖 혹형과 비인간적인 학대를 다 받았다. 청림교의 혁혁한 투쟁은 국내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3. 원종교의 독립운동

김중건(金重建)은 호를 소래(笑來), 불폐(不吠), 연산(蓮山)이라 하였고, 도호를 마루진(麻魯津), 또는 원백(元伯)이라고도 하였다. 그는 1899년 12월 6일에 조선 함경남도 영흥군 고녕면 연동리의 한 빈곤한 농민 가정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다. 김중건(以下 소래라 통칭함)은 이조 봉건통치가 극히 부패무능한 시기에 생활하였는바 그때는 중일전쟁을 걸쳐 점차 일제의 식민지로 운락하는 시기였다. 일제의 식민지 약탈과 봉건세력의 잔혹한 착취 속에서 조



▲ 원종교의 교주 김종건

선인민, 특히는 조선의 84%에 달하는 농민들이 빈곤과 기아와 능욕과 억압의 도탄 속에서 허덕이였다.

농민출신의 소래는 어려서부터 식민지 반봉건사회의 억제와 멸시를 받으면서 자랐다. 일제의 통치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운명에 대한 저주, 사회의 불평등과 민족에 대한 압박과 기시 등등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소래의 불만도 불어만 갔다. 그와 더불어 반역아 성격의 맹아 역시 움트고 자라기 시작했다. 17살에 고향의 서당에서 글을 가르칠 때 벌써 봉건윤리의 집대성인 4서5경을 집어치우고 노장철학의 연구에 몰두하였다. 19살 때부터는 개화사상을 접수하고 구세진결(救世眞訣)을 찾기 시작하였다.

1908년에 소래는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기로 결심하고 시골에서 신식 학교를 세우고 청소년들에게 개화사상을 전수하였다. 1909년 그는 서울에 가서 천도교에 투신하고 “제세구국(濟世救國)”의 진리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천도교에 실망을 느끼고 스스로 진리구도에 나섰다. 이 기간에 그는 『천기대경(天機大經)』을 지어 자기의 독특한 극원(極元)철학을 구사하였으며 ‘대공화(大共和), 무국론(無國論)’을 제출하였다. 그는 자기의 주장을 선전하고 일본 헌병의 눈을 가리기 위한 방편으로써 종교의 형식을 취하고자 원종교(元宗教)를 창립하

고 『대종원부경(大宗元符經)』을 저술하여 각지에 순회하면서 원종(元宗)적인 구세주의 사상을 전파하였다.

1914년에 그는 일제 통치세력이 비교적 박약한 조선인 집거구인 장백, 안도 등 현에 와서 “대종법명회 총사(大宗法命會總司)”(안도현)와 건원학교(장백현조천동)를 세우고 원종(元宗) 사상을 선전하는 동시에 반일민족운동 인재 양성사업에도 정력을 몰두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동경(道經)』들을 비롯한 많은 경전과 수필을 집필하였다. 1920년 5월에 그는 화룡현 장인강에서 대진단(大震團)을 꾸려 반일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일제의 간도대토벌 때문에 실패하였다. 그 후 1926년 말까지 그는 화룡현과 연결현의 동흥동, 세린하, 개촌동 등지에서 원종사(元宗寺)와 각 중 학교를 건립하고 반일 민족운동과 반일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920년에 연변에는 마르크스주의가 광범히 전파되었다. 소래는 이 새로운 사조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르크스주의, 무정부주의와 서방 근대사상을 탐구하고, 『신평』이란 잡지를 출간하여 그의 철학사상중의 종교적 색채를 제거하고 유아(唯我)철학과 인본주의 인생관을 주장하였다.

1928년에 그는 원래의 도덕 등 선교방침을 사회 운동 실천으로 바꾸고 헤이룽장성 영안현 팔도하자에 이전하여 그 곳에서 토지를 빌려서 첫 단계 사업인 ‘농촌주의촌(農村主義村)’을 건립하였으며 그곳을 조선 반일 민족해방운동의 근거지로 삼았다.

1931년 만주사변 후 소래는 농촌주의촌을 항일민족해방운동의 기지로 건설하고 조선혁명지도처를 건립하고 만주 대십자정책(중동철로 동부선과 남부선을 중심으로 농민항일조직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출하여 ‘백만 농민동맹을 확대’ 하고 ‘동방 약소민족 해방연맹’을 결성하자는 등 3대 구호를 내놓았다. 그로써 동북 중동철로선의 남부선(하얼빈-대련)과 동부선(하얼빈-수분하)을 중심으로 하여 항일 군중을 광범위하게 발동시키는 동시에 각 민족의 항일 연합전선을 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상술한 3대 구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일(李一)을 하얼빈에 파견하여 항일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와 교섭하여 연합항일을 약정하였고 또 김대용, 이원규, 이춘도, 박동욱 등을 동녕현에 파견하여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왕덕림 항일구국군과 반일 연합전선을 결성하게 하였으며 소련에서 국경을 넘어온 강국모 부대(혈성단을 편성하여 반일 무장투쟁을 진행하였었음)와 연합작전을 약속하고 이를 위하여 군비를 모금하고 무기를 구입하고 대오를 확충시키는 사업을 하였다. 또 조남표를 연변에 파견하여 연변판사처를 건립하여 대원을 모집하고 군수 자금을 모금하는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또 농촌주의촌에서도 반일 무장투쟁준비를 다그치고 군수자금과 군량을 마련하고 동대와 소년단의 군사훈련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당시 농촌주의촌부근 일대에서 활동하던 구국군 및 중공 빨치산 부대는 소래의농촌주의촌의 반일 운동과 연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배타주의 관념으로 그들을 민생단, 일본밀탐이라고 무함하면서 1933년 3월 24일 농촌주의촌에 쳐들어와 소래 등 6명의 주동자들을 암살하고 군중들도 해산시켰다. 뒤이어 일본 침략군이 농촌주의촌을 토벌하여 4년간 간고하게 건설하였던 농촌주의촌이 폐허로 불살라졌고, 그의 “농촌주의”운동도 실패를 고하였다.

4. 민족종교와 민족교육

대종교는 1914년 서울로부터 화룡현 삼도구 청파호에 옮겨와서 총본사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사도본사를 설치하여 포교활동과 더불어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대종교는 배일흥한(排日興韓)의 투쟁이념에 있어서 기독교 및 기타의 항일종교계와 목표가 동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민회에 합류하여 배일의식을 드높이는데 일조를 하였다. 그 때문에 대종교는 일제와 중국 측의 압력으로 1914년 11월에 화룡현지사로부터 해산령이 내려지는 등 많은 타격을 받았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항일구국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대종교는 간도 각지에 시교당을 설립하여 포교하는 한편 교육기관도 여러 곳에 설립하였는데 그중 대표적인 학교로는 <표>와 같다.

대종교계 설립학교

학 교	설립시간	위 치	경 영 자
청일학교	1912.7	화룡현삼도구청파호	현 천 목
동창학교		화룡현영화사미전동	이 정 완
봉명학교		연길현대송허사구송허	
승신학교	1912	화룡현명신사구세동	이 권 수
명동학교	1913.5	왕청현동명사덕원리	한 승 접
광동학교		왕청현춘양사대완구	
창동학교		왕청현춘명사서대포	한 치 목
진동학교	1913.2	훈춘현승례향홍기하	안 태 명

천도교는 1907년을 전후하여 만주지역에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1908년 천도교는 국자가에 한명의숙(漢明義塾)을 설립하고 교회세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들은 개산툰·결만동 및 국자가 서쪽에도 학교를 세웠다.

북간도 민족종교별 조선인학교수 및 학생수(1926년)

종교별	시천교	천도교	청림교	원종교	대종교	계
학교수	5	6	2	9	5	27(개)
학생수	238	806	93	304	199	1640(명)

[資料] 牛丸潤亮, 『最近間島事情』, 朝鮮及朝鮮人社, 1927

종교인이면서 사상가인 원종교의 교주 김중건은 1918년 안도현 내두산 일대에 가서 포교하였고 그 후 화룡현 삼도구 원화동에 가서 포교하는 한편 반일활동을 하였으며 또 그곳에 원종교계통의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반일인재를 양성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일제의 탄압으로 학교를 영안현에 옮겨 계속 포교하는 한편 반일인재를 양성하였다. 원종교계통의 학교들로는 연길현 수신향 대팔포강의 인일학교, 연길현 수신향 하내성의 경신학교, 연길현 수신향 평강의 건원학교와 농대학원 등이다.

민족주의 교육의 가장 주된 장은 아무래도 학교의 교과과정을 통한 교육이었다. 각 학교들에서는 근대지향적인 교과목과 민족주의지향의 교과목을 학교교육의 전면에 깔아두었으며 창가교육과 체육교육을 중시하였다. 학교교육의 일선을 차지하고 있는 교사들도 쟁쟁한 민족지사들이었다. 따라서 민족학교교육은 중국 지방당국과 일제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일제의 식민주의교육과 중국지방당국의 동화교육에 맞설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생명력을 과시하면서 전반 간도지역의 조선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으로 자리를 굳혔다.

이와 같이 애국계몽운동의 연장선에서 실시된 간도의 조선인 민족교육운동은 간도에서의 반일무장투쟁과 더불어 간도 조선인 독립운동의 양대 산맥을 이루게 되었으며 반일무장투쟁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정신적 및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편 『동북아연구논총』 IV, 2012
(공동집필자 : 허영길, 박금해, 박창욱, 김호웅, 이종훈 외)

獨 메르켈, “나치 범죄 영원한 책임” … 일본은 독일 배워야



이 슬
뉴스한국 기자

아돌프 히틀러 권력 장악 80주년 앞두고 진심으로 반성 “어두운 시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책임 있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아돌프 히틀러 권력 장악 80주년(1월 30일)과 세계 홀로코스트 기념일(1월 27일)을 앞두고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공식사이트에 2차 세계대전의 나치 범죄를 조목조목 반성했다. 메르켈 총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역사의 잘못을 묻어두지 않았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낱낱이 밝혔다. 이는 역사적 과오를 모른 채하고 책임 회피에 여념이 없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모습과 대비된다.

메르켈 총리는 26일 “나치 시대의 범죄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독일인들은 어두운 시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나치가 자행한 범죄와 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들 그리고 홀로코스트에 영원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당시 나치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올바른 사람이 많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불행히도 많은 사람이 스스로의 눈을 멀게 했다. 인종차별주의와 반유대주의가 우리 가운데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노력은 특정 세대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자손대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의 반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역사를 직시하고 어떤 것도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주변 국가들에게)우리가 미래에도 선하고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사실(역사적 과오)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돌프 히틀러는 1933년 1월 30일 총리로 임명된 후 12년 동안 독재자로 군림하며 반인도적인 유대인 말살정책을 주도했다.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포로수용소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 등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메르켈 총리가 나치의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9월 2차 세계대전 발발 70주년 기념식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나치 독일의 만행을 사과했다. 메르켈 이전 독일 총리들 역시 역사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했다.

2004년 8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독일인들은 나치의 범죄를 생각하면 부끄러움 속에서 몸을 수그린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고, 1987년 1월 콜 전 총리 역시 “독일은 나치의 만행을 잊거나 숨기거나 경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1970년 12월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을 찾아 헌화한 뒤 무릎을 꿇었다. 5만여 명의 유대인이 나치에 의해 죽거나 체포된 그 장소에서 브란트 전 총리는 엄숙한 표정으로 두 손을 가지런히 앞으로 모은 채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브란트 총리는 한참이 흐른 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후에 “수백만 희생자에 대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다”고 회고했다.

독일의 전직 총리와 메르켈 총리가 자국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통렬하게 반성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간 속에 파묻으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 철회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총리 취임 후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나는 21세기에 어울리는 미래 지향적인 아베 내각의 담화를 발표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1년 8월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했고, 작년 10월 아베 총리는 1기 총리 임기(2006년~2007년) 중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못했던 것을 “통한”이라고 표현했다.

※ 이 기사는 1월 28일 <뉴스한국>에 실린 기사입니다.

항일전선의 최고령 노(老)투사 강우규 의사



정운현
오마이뉴스 초대 편집국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

제가 살고 있는 서울 독립문 네거리에는 옛 서대문형무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일제 때는 항일투사들이, 독재정권 하에서는 민주투사들이 옥고를 치렀던, 우리 민족사의 비원이 담긴 유서 깊은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88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시가 도시정비 차원에서 형무소 건물의 상당부분을 헐어내고 공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수년전 저는 나치 정권 하에서 유대인 수백만 명이 희생된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수용소는 모두 세 곳이었는데요, 제가 가본 두 곳은 모두 원형이 잘 보존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광자원으로서도 훌륭해 보였습니다. 반면 서대문형무소는 원형의 70%가 사라지고 지금은 옥사(獄舍) 및 동과 사형장, 시구문, 그리고 담장 일부가 남아 있어 과거 이곳이 ‘감옥’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대문구청에서 이곳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꾸며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원형의 상당부분이 훼손된 것은 못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일제 때 이곳에서 옥고를 치른 선열들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왕산 허위 선생, 김

동삼 선생을 비롯해 백범 김구 선생도 ‘치하포 사건’ 후 이곳에서 잠시 옥고를 치루셨지요. 그리고 강 의사님도 의거 후 친일경찰 김태석에게 체포돼 이곳에서 옥고를 치루셨고, 또 이곳 사형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의거 이듬해인 1920년 11월 29일이었습니다.

강 의사님의 삶을 돌아해보면 60평생을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조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그 숭고함에 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한말 국운이 기울던 시기부터 치자면 8.15 해방 때까지 근 반백년에 걸쳐 무수한 애국선열과 민족지사가 항일투쟁 전선에 몸 바치고 피를 흘렸습디만, 강 의사님의 투쟁은 분명 남다른다고 하겠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대다수의 경우 한 분야의 활동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뜻있는 우국지사는 자결로 항거하거나 선각자는 계몽운동을 하였으며, 독립군 등은 무장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또 더러는 항일 필봉을 휘두르고 자산가는 군자금을 댔으며, 이도저도 없는 일반민중들은 태극기로 만세를 부르며 몸으로 때웠습니다.

20대까지는 고향(평남 덕천)에서 한의업에 종사하시던 강 의사님은 30세 되던 해인 1885년 흥원으로 나와 사업을 하시면서 제법 큰 돈을 모았습니다. 대개의 장사꾼이라면 그 돈을 재투자해 더 큰 돈을 벌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 의사님은 그 돈을 신식교육과 육영사업에 투자하셨고, 그 후에는 전도사업과 교회 건설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애국지사묘역에 있는 강우규 의사의 묘소

이 과정에서 앞서 국권회복운동에 나선 이동휘 선생을 알게 되셨고,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가 망하자 압록강 건너 간도로 이주해 본격적으로 독립투쟁에 나서셨습니다. 이후 북만주와 러시아 연해주를 떠돌던 의사님의 일가는 1917년 북만주 지린성 요하현에 정착하셨습니다. 의사님께서 이곳에 거처를 잡은 것은 이곳이 노령(露嶺) 지역 독립운동단체들과 접촉이 용이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나중에 이곳은 노령, 북만주를 무대로 한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지요.

그해 봄 요하현에 광동학교를 세운 의사님은 이곳의 한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대한지지, 역사를 비롯해 산술, 물리, 생물 등 신식교육을 하셨으며, 이를 통해 민족의식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기독교 신자로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였으며, 이를 통해 배일사상을 고취시켜 광동학교는 북만주에서 민족교육의 정점으로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19년 3월 1일, 조국에서 전 동포가 거국적으로 만세의거를 일으키자 3일 뒤인 3월 4일 한인동포들을 모아 신흥동에서 만세의거를 전개하셨습니다. 3.1만세의거 직후 블라디보스톡 한인촌에서 ‘노인동맹단’이 결성되자 의사님은 요하현 지부 책임자를 맡아 이에 적극 가담하셨습니다. 그 때 의사님의 연세는 62세, 외부활동을 하기에 당시로서는 고령이었습니다.

그 무렵 블라디보스톡 한인사회에 하세가와 총독이 조만간 경질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7월 들어 국내 언론에는 하세가와 후임으로 해군대장 출신의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노인단에서 거사 모의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맡겠다고 자원했던 의사님은 마침내 사이토를 처단기로 결심하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1919년 9월 2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후 5시 사이토가 탄 기차가 서울역(당시 명칭은 남대문역) 플랫폼에 도착하였고, 사이토는 출영객들의 환영을 받으며 귀빈실을 빠져나와 남산 총독 관저로 향했습니다. 그가 탄 마차가 겨우 몇 바퀴를 구른 순간 굉음과 함께 역 광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사님의 폭탄 투척이 성공했으나 불행히도 사이토를 적살하지는 못했습니다.

거사 후 현장을 무사히 빠져나와 은신 중이던 의사님은 거사 보름만인 9월 17일 친일경찰 김태석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를 마치고 10월 7일자 신문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남대문역 폭탄투척사건’의 진상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범인’은 평남 덕천 출신의 65세 강우규.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놀랐습니다. 하나는 별건 대낮에 총독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진 그 기개요, 다른 하나는 ‘범인’이 65세의 노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0월 20일 기소된 의사님은 1~3심 재판 동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며 재판정에서는 판사를 향해 거사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피력하셨지요. 상급법원에 항소, 상고한 것은 목숨을 구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동지들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옥중투쟁을 통해 일제침략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며 또 다른 항일투쟁을 하셨습니다.

이듬해(1920년) 5월 27일 고등법원 상고기각으로 사형이 확정된 지 6개월만인 11월 29일 의사님은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당일 오후 2시 장남 중건이 부친의 시신을 인도 하러 갔을 때 의사님은 앉은 채로 관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해마저 일경의 감시 때문에 공동묘지에 가매장을 해야 했으며, 해방 후 10년이 지나도록 묘소는 방치돼 있었습니다.

2만 한의사는 식약청에 폭탄을 던지고 싶다
 거리의 자산 한약을 거대 제약회사에 팔아넘긴 식약청은 자폭하라 !!



1919년 9월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어떤 노인이 조선총독을 향해 폭탄을 던졌다. 64세의 강우규(한의사)였다. 비록 총독 입찰에는 실패했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구를 버린 그날의 자기는 많은 식민지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맺었다.

2012년 우리 2만 한의사는 보라온 강우규가 되어 거리의 온갖 민족의 자산을 팔아넘기는 제국노들에게 폭탄을 던지려한다. 지난 10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알약은 알의사가 한약은 한의사가 처방해왔다. 그런데 최근 식약청에서 각종 불수를 동원하여 한약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거대 제약회사와 알의사들에게 넘겨주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 할 식약청이 국민건강을 내팽개치고 어찌 알의사들에게 한약을 처방하게 할 수 있는가?
한약을 달여 캡슐에 넣고 알약으로 만들면 그게 알약이 되는가? 한약 이름만 영어로 바꾼다고 그게 알약이 되는가?

식약청의 알약 아래 거대 제약회사는 이미 이런 알약으로 입허리신약을 팔아 매년 수천억의 수입을 벌이고 있다. 이에 우리 2만 한의사는 90년전 강우규 의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제국노 식약청과 제약사들을 향해 강력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이 광고는 회원들의 성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국민은행 539011-01-296716 예금주 대한한약협회비상대책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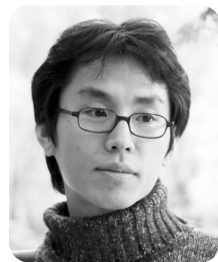
▲ 2012년 10월 한의사협회가 일간지에 실은 광고에 등장한 강우규 의사

2006년 ‘강우규의사기념사업회’가 출범해 2009년 의거 90주년을 맞아 의거 현장인 서울역 광장에 의사님의 동상을 건립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의사님 동상 앞을 지나다니지만 의사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그 몇이나 되겠습니까? 해방 후 친일파와 그 아류들이 득세하면서 민족정기는 송두리째 뿔히고 말았으니 이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습니까. 최근 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한방정책을 비난하면서 일간지에 ‘2만 한의사는 식약청에 폭탄을 던지고 싶다’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의사님의 의거 현장인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다못해 ‘강우규 한의사상(賞)’ 같은 것도 하나 제정하지 않은 그들이 의사님 이름을 팔아먹는 걸 보면서 작은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젊어서부터 순국하실 때까지 일생을 한 점 오점도 없이 사신 의사님을 떠올리면 후손된 자로서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범부들의 삶이 일신의 안위와 명리를 쫓는 것이 보통이지만 오늘날 우리사회는 도덕적으로 너무도 병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전도된 가치관과 왜곡된 역사가 판치고 있으니 더욱 더 가관인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오늘도 독립공원 한켠에 서있는 순국선열추모탑을 지나면서 의사님을 떠올렸습니다. 지금도 고혼(孤魂)으로나마 이 산하를 굽어보고 계실 의사님을 그리며 추모탑에 절을 올렸습니다. 의사님께서 목숨 바쳐 보우(保佑)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을 부디 보살펴 주소서. 하늘에서라도 이 못난 후손들을 거두어 주소서. 거두어 주소서. 

영화 <아르고>, 단힌 미국과 불가능한 탈출



이 두 희
자유기고가

1979년 이란에서는 시민혁명에 의해 입헌 군주제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종교지도자 호메이니에 의한 신정체제가 들어섰다. 친미노선이었던 팔레비 왕이 요양을 이유로 미국으로 망명하자 민중들의 반미감정은 더욱 고조되었고, 결국 그해 11월 급진적 학생 시위대가 팔레비 왕의 신병인도를 요구하며 미대사관을 습격하여 대사관 직원 70여명을 인질로 삼게 된다. 인질 사태는 여러 국가들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미국의 강경한 입장 차이만을 보이며 별다른 진척도 없이 양국의 국교단절과 경제제재 조치로 장기화되었고, 결국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야 협상이 재개되어 400여일 만에 인질 전원이 석방된다.

영화 <아르고>는 이 인질사태의 이면에 있던 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서, 당시 이란 캐나다 대사관에 피신해 있던 다른 6명의 미대사관 직원을 구출하기 위한 동명의 CIA비밀작전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배우 출신 감독답게 벤 애플렉 자신이 직접 주인공인 CIA요원 토니 멘데스 역을 맡는다. 영화 속에서 토니 멘데스 요원이 고립된 미대사관 직원들을 무사히

탈출시키기 위해 고안한 방법은 이란의 이국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한 SF영화 '아르고'의 촬영팀을 가장하는 것이었다. 먼저 그는 할리우드에서 가짜 제작팀을 꾸리고 언론에 영화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킨다. 그 후 캐나다 국적으로 이란에 입국한 그는 미대사관 직원들을 설득해 영화 스태프처럼 연기하도록 훈련시킨다. 그리고 모두를 속이고 그들은 이란을 빠져나온다. 실제로 당시 작전은 그렇게 성공했다. 이 실화는 사실 어느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현실 속 영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영화 <아르고>는 벤 애플렉 감독의 세 번째 연출작이다. 현재 할리우드에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멜 깁슨 등 이미 배우 출신의 감독이 여럿이 있지만, 벤 애플렉은 영화 경력 초기부터 <굿 윌 헌팅>(1997)의 각본에 참여하는 등 연출에 대한 관심이 많은 배우였다. 그 후 <체인징 레인스>(2002), <저지 걸>(2004) 등에서 배우로서 주목을 받았던 그는 감독 데뷔작이었던 영화 <가라 아이야 가라>(2007)의 성공 이후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스타 배우이자 스타 감독인 것이다. 더욱이 영화 <아르고>가 지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는 등 평단의 인정을 받으면서 벤 애플렉이야말로 제 2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은 젊은 감독의 작품에 대해서 당장의 완성도와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감독으로서 영화 작업에 대해 가지는 관점과 전망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영화 <아르고>는 탈출 영화로서 그 긴장감을 잘 연출하고 있다. 이란의 미대사관 침탈에서부터 작전을 위한 준비과정의 갈등, 그리고 실제 이란에서 진행된 짧은 며칠간의 이야기는 그들이 공항에서 출국절차를 밟아 무사히 탈출하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이어진다. 다만 실제 사건의 증인들이라 할 수 있는 인질들에 대한 극적 비중이 조금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고, 비밀 작전과 이란 혁명군의 추적을 동시진행 과정으로 보여준 고집스런 고전적 편집이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겠지만, 영화 <아르고>는 기본적으로 탄탄한 연출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기술적 연출력 외에도 영화의 긴장감이 더해지는 까닭은 영화에서 그려진 이란의 모습이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혼란스러운 무정부상태에 가까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얼굴과 피부색은 물론 언어나 관습 모든 면에서 그들과 어떤 공통점도 찾을 수 없을 것처럼 그려진 이란 안에서 미국인 주인공들의 지위는 고립감뿐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테헤란의 불타는 거리와 공개 처형되는 반혁명분자들을 보면서 그들은 초조함과 공포심을 느낀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는다. 영화 속

에서 그려진 이란을 볼 때 <아르고>의 긴장감의 한 축이 미국인이 세계를 바라보는 자신들의 시선에서 비롯한다고 믿는 것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마저도 의도된 연출이라고 한다면 역시 재능 있는 연출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영화 <아르고>에는 감독의 의도를 다소 미심쩍게 보이게 하는 장면이 있었다. 아마도 인민재판에서 처형당한 누군가를 크레인 위에 목매달아 놓은 한 장면, 거리에서 주인공의 시선으로 한번 훑고 지나간 그 짙막한 장면이 그것이다. 과연 그러한 묘사가 영화를 꾸며 주는데 꼭 필요했을까하는 생각도 잠시였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 이미지는 영화의 크레딧 장면에서 다시 등장한다. 이번에는 당시 이란으로 보이는 기록사진과 비교하듯 닳은꼴로 나란히 배치해서 말이다. 크레딧 장면은 그 밖에도 당시 대사관 직원 등의 사진과 배우들의 모습 등 인질사태와 관련한 실제 기록들과 영화의 연출된 장면들이 얼마나 비슷한 가를 짐짓 뽑내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다. 사실 사진의 기록성이 영화 속에서 이렇게 인용되어 사용되는 것도 조금 유치하고, 사진의 증명력에 그러한 권위가 남아있는지를 감독이 의심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한심할 수도 있는 일이다. 실화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 할지라도 그 영화적 권위를 실화라는 사실에만 의지한다면, 감독 스스로 영화 작업에 대해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크게 기대할게 없을 것이다. 어쨌거나 의도되었든 아니었든 마지막 크레딧 장면은 영화를 이끌어온 긴장감과 다른 우화적인 효과를 줄 뿐이었다.

영화 <아르고>의 영화적 설정에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흥미 있는 요소들이 있었다. 고립과 탈출이라는 고전적인 소재와 함께 영화 속의 영화라는 자기반영적인 면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건은 실화이지만 영화는 가짜라는 상황 자체가 무척이나 영화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미국인들의 탈출은 영화적으로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그들은 과연 누구로부터 어떻게 탈출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프랑스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는 자신의 자서전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에서 2차 대전 당시 자신이 포로수용소에서 겪었던 탈출에 대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한 적이 있다. 당시 수용소에서의 탈출은 탈출 자체보다는 그 후에 독일군의 전 병력이 동원되는 3주간의 추적을 피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알튀세르의 일행은 우선 수용소를 탈출한 것처럼 가장한 후에 3주 동안 그 안에 숨어있는 방법을 고안해 낸다. 물론 이 에피소드는 알튀세르가 장난삼아서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그에게 있어 이 가상의 에피소드는 어떻게 한 테두리 안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에 대한 철학적 문제를 곧 비유하는 것이었다. 즉, 자신이 속한 시스템 안에서 그 바깥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어려운 일일 것이다. 자신의 세계관에만 갇혀 있을 때 우리는 피아를 올바르게 구별하기조차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 영화 아르고 중에서..



영화 <아르고>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과연 미국이 이란 미대사관 인질 사태를 얼마나 열린 시선으로 다시 볼 수 있었는가하는 점이다. 과연 삼십년 전의 사건을 다시 보면서, 그 시간의 간격만큼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는 없었던 것일까. 영화 <아르고>에서 그려진 이란은 70년대 미국이 바라본 그대로의 이란과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21세기 테러와의 전쟁 이후 그들을 더욱 본질적으로 두려운 대상으로 그리고 있지 않나 싶다. 영화는 70년대 당시의 시대상을 재현하고 있지만 그 태도가 21세기의 미국의 불안감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역시 불분명한 구분을 두고 있는 듯 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나 영화라는 매체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풍자적이 될 수 있었을 소재에도 불구하고 <아르고>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점이다.

아마도 미국의 바깥을 모르는 미국인들에게는 미국의 경계란 처음부터 불분명할 것이고 자신들의 영향력이 세계 어느 곳이나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이상 탈출이란 처음부터 불가능할 과제가 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이란의 영공을 벗어난 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때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집 밖으로 나가 타인들을 만날 적이 있었는가를 묻고 싶어지는 것이다. 



▲ 영화 아르고 중에서..

독립운동가 3대 지켜 낸 겨레의 딸, 아내 그리고 어머니 “김 락”



이 윤 옥
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나라의 녹을 먹고도 을미년 변란 때 죽지 못하고
을사년 강제 조약 체결을 막아 내지 못했다며
스무나흠 곡기를 끊고 자결하신 시아버님

아버님 태운 상여 하계마을 당도할 때 마을 아낙 슬피 울며
하루 낮밤 곡기 끊어 가시는 길 위로했네.

사람 천석 글 천석 밥 천석의 삼천 석댁 친정 큰 오라버니
백하구려 모여든 젊은이들 우국 청년 만들어
빼앗긴 나라 찾아 문전옥담 처분하여 서간도로 떠나던 날
내앞 마을 흐르던 물 멈추어 오염했네.

의성 김 씨 김진린의 귀한 딸 시집와서
남편 이종업과 두 아들 동흙 중흙 사위마저
왜놈 칼 맞고 비명에 보낸 세월



선일곱 늘그막에 기미년 안동 예안 만세운동 나간 것이
 무슨 그리 큰 죄더냐?
 갖은 고문으로 두 눈 찢려 봉사 된 몸
 두 번이나 끊으려 한 모진 목숨 11년 세월
 그 누가 있어 한 맺힌 양가(兩家)의 한을 풀까.

향산 고택 뒷마루에 걸터앉아
 흘러가는 흰 구름에 말 걸어본다
 머무는 하늘가 그 어디에 김락 여사 보거들랑
 봉화 재산 바드실 어르신과 기쁜 해후 하시라고
 해거름 바삐 가는 구름에게 말 걸어본다.

김락(金洛, 1863.1.21~1929. 2.12)

3·1만세운동 당시 김락은 선여섯이었다. 우국지사 시아버지의 단식과 남편의 순국에 이
 은 두 아들의 독립운동을 몸소 겪은 김락 애국지사의 친정 집안 역시 손꼽히는 독립운동가
 집안이다. 1911년 1월 전 가족을 이끌고 서간도 유하현(柳河縣)으로 망명한 친정 오라버니
 김대락 애국지사는 이상룡·이동녕·이시영 애국지사들과 함께 항일투쟁을 전개한 인물이다.

김대락 독립지사는 만삭의 손자며느리까지 모두 데리고 망명길에 올랐는데 며느리가 망명
 길에 산기를 느끼자 일제가 짓밟은 땅에서 출산할 수 없다 하여 압록강을 넘어 출산하도록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투철한 양가의 절절한 독립운동사를 몸소 겪으며 본인 스스로 일
 제의 고문으로 눈이 먼 채 한 많은 삶을 살다간 애국지사 김락은 안타깝게도 안동 밖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 동아시아를 읽는다.

- 보수의 시대를 가로지르는 생각

(한승동 지음/마음산책 출판사 펴냄)

서 평 : 출판사



보수의 시대,
 우리는 어떤 가치를 읽어내야 하는가.
 한국과 동아시아의 일그러진 관계를
 되짚는 고찰

동아시아는 또다시, 아니 여전히 이념의 시대다. 일
 본에서는 ‘대동아공영’을 외치던 A급 전범 기시 노부
 스케의 외손자인 극우파 아베 신조가 다시 총리직을 맡
 아 동아시아 정세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고, 우리나라에
 서는 전 정권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이 다시 바통
 을 이어받았다. 대선의 화두는 한국과 일본 모두 ‘보수
 재집권’이었다.

이념이 위세를 부리는 시대의 공통점 하나. 소위 ‘진보’라 불리는 보수의 숙적이 득세한
 적은 없었다. 한국의 경우 해방 이후 (보수가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수의 시대였고 이념은 그 시대를 지탱한 골조였다. 친일 역사 청산도, 산업화 시대 비판도
 이내 ‘빨갱이’나 아니냐의 문제로 환원되거나 그에 밀려나기 일쑤였다. 지금, 그러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하나의 이념이 강성한 시대란 이념 사회가 안정화에 든 시대라고 보아야 할까?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물을 차례다. 그러한 시대에도 발생하는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보수가 정치 진영의 이름이라면 ‘우경화’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가? 어쩌면 이
 런 질문은 이념 갈등을 심화할 피상적인 물음일지 모른다. 그보단 이렇게 물어야 할 것이다.
 어느 시대고 이념이 맹위를 떨치는 일이 과연 옳을까?



이 책은 이른바 동아시아 보수의 시대인 지금 우리가 놓인 '기울어진' 동아시아 무대의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자문하고, 시대에 대응하는 자세와 되새길 가치들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이념 문제를 야기한 미국과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정세를 다각도로 읽어낸다. 이념 때문에 뒷전으로 밀린 친일 역사 청산과 민족 문제, 사대주의 문제, 산업화와 민주화 문제, 나아가 자연과 인간성의 회복 문제까지 역사와 현안을 넘나들며 한국의 깊은 자리를 짚어내고 이를 치유할 고찰을 시도한다. 26년여 동안 동아시아와 민족문제를 고민해온 베테랑 기자답게 사실(史實)과 주요 책들을 능수능란하게 원용해 논의를 전개하며, 동아시아 무대에서 쓰린 역사 경험을 되풀이해온 한국을 주변국과의 관계에 비추어 균형감 있게 이해한다. 5개 장 44개 꼭지로 이루어진 이 책은 곧은 역사의식을 고민하는 한 '동아시아통'의 끈질기고 치열한 취재 수첩이다. 동시에 그러한 행보를 하는 데 바로미터가 되어준 여러 연구자들과 그 업적에 행동으로 화답하는 헌사다.

대한민국을 잠식한 '이념병'의 본질 바로 알기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이념이 '도입'된 지 채 한 세기도 되지 않았지만, 이념 갈등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로 자리 잡았다. 짧은 기간 막강한 장악력을 드러낸 외래종의 사상, 그 시작과 변질을 돌아보는 것은 저자의 주요 관심사다.

일제강점기에 이념을 빌린 속내에는 '민족 해방'이 있었다. 따라서 일제는 사상범을 '제국'의 명분하에 소탕해야 했고, 이는 해방 뒤 일제 잔재를 해소하지 못하고 미국 등의 요구에 따라 친일 인맥과 조직을 그대로 승계해야 했던 이승만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친일 부역자들이 자기 안위를 보전해야 했기에 민족문제는 자연히 '사상'의 문제로 탈바꿈했다. 친일 청산의 외침은 곧 국가권력에 대한 반발로 통했고 이내 불순한 '사상'으로 매도되었다. 이것이 짧은 기간에 굳게 뿌리박은 이념 갈등의 부자연스러운 발아 과정임을 저자는 역사적 맥락에서 읽어낸다. 그러면서 이념에 맹목적으로 함몰되지 말고 진흙탕 같은 감정싸움에서 한 발짝 물러나 문제의 본질을 살피길 종용한다.



우리 사회 갈등의 기원을 밝히는 키워드, 동아시아 역사에서 과거와 현재는 별개가 아니다.

결국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권력과 비권력의 문제, 지역 대립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친일과 반일, 민족과 반민족, 나아가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의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반도의 경계를 벗어나 '동아시아'로 역사적 인식을 넓혀야 하는 이유다.

"남쪽 절반의 작은 성공"에 매몰된 한국. 거기에 일제강점기 항일 투쟁에 삶을 내건 이들의 민족적 역사의식은 빠져 있다. 저자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환기하기 위해 해방 뒤 지독한 잔재를 남기고 간 일본의 이름들을 소환한다. 과거의 망령은 세기가 바뀐 지금도 살아남아 배후를 지킨다. 오늘날 한일 갈등의 실마리를 마련한 대표적인 이름들, 그중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의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의 이름이 특히 눈에 띈다. 그의 사상을 이어받은 외손자 아베 신조는 일본 극우를 대표하는, 현재 일본의 총리다.

이 책은 역사에서 과거와 현재는 별개로 존재하지 않으며, 역사란 동떨어진 시간을 추려 '맥락'으로 조합해내야만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임을 암시한다. 저자가 과거사와 더불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동아시아의 '현안'을 주목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는 뒤틀린 동아시아 역사가 빛어낸 지금의 증상들, 예컨대 일본이 몰이해와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일본 군위안부 문제, 재일 조선인 문제, 독도와 다오위다오 영토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건드리며 그 기원과 진행 과정을 역추적해 들어간다.

한국 신문의 역사, '자유'와 '실천'의 기록 상처의 회복을 염원하다.

저자의 사유와 반성은 역사, 사회, 과학, 나아가 자연까지 책을 매개로 영역들을 넘나들지만,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건 자신이 한국 현대사의 거대 흐름을 곁에서 목도한 기억이 투영된, 대한민국 신문들에 관한 고찰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손에 제계당한 <독립신문>부터 훗날 한국 신문의 고된 흐름은 곧 억압과 왜곡의 역사였다.



거대 권력의 폭거에 '보도지침'과 '백지 광고 사태'를 거쳐 '해직 기자' 신세를 면치 못한 이들의 '언론 자유' 외침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자산은 지금도 여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 다시 진영 싸움에 매몰될 위험성을 견제하며 신문이란 권력의 성격이 어떠한 그에 비판적이어야 함을 되새긴다.

이러한 자세는 비단 정치와 사회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저자는 여러 소재를 다루며 다양한 관심을 피력하면서도, 어느 글에서건 편중된 권력관계를 비판하며 거기서 비롯한 상처의 회복을 염원한다. 비판의 진정성은 차가운 머리를 뜨거운 감성이 받칠 때 전달되는 것임을, 이 책은 우리가 겪는 현실을 통해 반추한다.



독부 이승만 평전

- 권력의 화신, 두 얼굴의 기회주의자

(김삼웅 지음/책보세 출판사 펴냄)

서 평 : 출판사



만 사람의 경륜이 모두 틀려버린 '한 사람의 세상'

MB정권·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세력 그리고 이른바 '뉴라이트'를 필두로 한 어용 지식인·언론인 무리는 이승만을 '국부' 곧 '건국의 아버지'로 미화하고, 1948년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왜곡한다. 이는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발상이자 헌법을 무시하고 역사와 진실을 모독하는 곡학아세다.

이는 저들이 '근대화의 아버지'로 찬양하는 박정희에 이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켜세워 저들의 구심으로 삼음으로써 친일·친미에 기반을 둔 기득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속셈이다.

저자의 말대로 이승만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책들이 서점에 넘쳐나고 수구족벌신문과 어용 방송은 이승만을 미화하는 데 여념이 없다. 조선일보 기자 이한우의 《우남 이승만 대한민국을 세우다》《거대한 생애 이승만의 90년》, 조선일보 기자 출신 이도형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로버트 올리버의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 안병훈의 《대통령 이승만》, 역시 조선일보 기자 출신 안보길의 《이승만 다시 보기》, 유명익 외 대학 교수들이 공동집필한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사학자 이주영의 《이승만과 그의 시대》, 역사학자 남정옥의 《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 등 이승만을 미화하는 책들이 봇물을 이룬 가운데 조선일보 기자(출신)들의 맹활약이 눈에 띈다. 이에 저자는 왜곡을 바로잡고 음모를 분쇄



하고자 《'독부' 이승만 평전》을 내놓았다. 저자는 심산 김창숙 선생의 말을 빌려 이승만을 '독부獨夫'로 규정하고 그의 시대를 “만 가지(사람) 경륜이 모두 틀러버린 한 사람의 세상”으로 평가한다.

권력의 욕망은 인간 이성과 자제력을 넘어선다고 하지만, 이승만의 경우는 너무 지나쳤다. 그의 욕망 앞에 민주주의나 민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찾을 수 없게 된 현실에 직면하여 김창숙 선생은 “국가는 나날이 오그라들어가고 민족은 나날이 녹아들어갔도다. 남북은 어느 때나 평화로워지며 백성은 어느 때나 즐거워지려나. 아아 슬프도다, 한 사람의 세상 만 가지 경륜이 모두 틀러버렸다.”고 한탄해마지 않았다. 오죽 했으면 시인 김수영은 4.19혁명 직후 “선량한 백성들이 하늘같이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우러러보던 그 사진은 사실은 억압과 폭정의 방패이었느니, 썩은 놈의 사진이었느니, 아아 살인자의 사진이었느니”(시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싹개로 하자>)라며 치를 떨었을까.

그렇다고 이 평전이 이승만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기술한 것만은 아니다. 공功은 공대로 과過는 과대로 엄정하게 평하고자 이승만에 관한 거의 모든 저작과 자료를 섭렵하고 반영했다. 특히 젊은 날 이승만의 선구자적 반일 언론활동과 개혁적 정치활동은 높이 사고 있다. 그러나 임시정부 수립과 하와이 정착 무렵부터 발현된 그의 '독부' 성향은 '독립 휘방꾼' '통일자주독립국가 수립 휘방꾼'에 이어 끝내 '민주주의 반역자'로 귀결되고 말았으니, 역사의 불행이요, 민족의 불운이다.

'독부'에 관하여

심산 김창숙 선생은 자유당 정권 당시 대통령 이승만을 일러 '독부獨夫'라 했다. 독부란 “인심을 잃어 잔적殘賊이 된 일부一夫(한낱 사내)”를 일컫는다. 義義를 해치는 자를 잔殘이라 하고 인仁을 해치는 자를 적賊이라 한다. 《맹자》<양혜왕>조에 보면, 전국시대 제나라 선왕宣王이 맹자에게 “탕湯과 무武가 저마다 결桀과 주紂를 쳤는데, 신하로서 임금을 죽이는 것이 옳으나?”고 따져 묻자 맹자는 “잔적殘賊은 일부一夫(독부獨夫)에 불과하다. 일부인 결주를 죽였단 말을 들었어도 임금을 죽였단 말을 듣지 못했다”고 일갈한다. 조선조 태종은 재위 5년 어느 날 세자(양녕)와 마주한 자리에서 “결주는 비록 천하의 주인이었지만 인심을 잃자 하루아침에 독부가 되고 말았다. 하물며 너와 내가 인심을 잃으면 하루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깨우쳤다.



이승만은 독립운동 진영에서 한때 명망을 얻어 지도자로 부상하고 해방조국의 초대 대통령까지 되었으나 크게 인심을 잃어 독부로 전락하여 시민들에 의해 쫓겨나고 말았다. 그런 사특한 독부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건국의 아버지'니 뭐니 하며 찬양하고 미화하는 나라가 동서고금을 통틀어 대한민국 말고 어디에 또 있을까. 독부는 백성(국민)을 해치는 자 곧 민적民賊이니, 그런 민적을 '국부'라 희롱하는 이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나는 여성독립운동가입니다.

(글 김일옥, 그림 백금림/상수리 출판사 펴냄)

서 평 : 출판사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한
11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그린
인물 이야기**
-지금까지 밝혀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 212인 명단 수록-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여성들 또한 대한 독립을 위해 힘을 보탰던 역사의 주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는 유관순 이외에 윤희순, 조마리아, 곽낙원 등 11명의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을 조명하고, 그 외 212인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밝힌 인물 이야기입니다.

땅속에 단단하게 뻗어 있는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 모두가 치열하고 감동 깊습니다. 의병가를 짓고 여자들만의 의병대를 만들어 의병들에게 화약을 만들어 보냈던 윤희순, 군자금을 숨겨서 압록강을 넘었던 정정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로서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속 어머니 역할을 했던 조마리아, 나라를 위해 자신의 손가락 세 개를 바쳤던 남자현, 김구 선생의 어머니이자 독립군의 어머니였던 곽낙원 등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여성 독립운동가 223명의 나라 사랑과 독립을 향한 의지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분들을 꼽으라 하면 김구, 안중근, 윤봉길 등의 독립운동

가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남성들만이 아니라 여성들 또한 대한 독립을 위해 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남녀가 유별하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던 당시, 어린 몸으로도, 할 줄 아는 것이 밥 짓는 것과 길쌈 밖에 없었지만 당당하게 제몫을 하면서, 각자 자신이 지닌 능력을 다해 대한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쳤습니다. 그러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2012년 말까지 밝혀진 분만 223명이나 됩니다. 그 외에 밝혀지지 않는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는 우리 독립운동사에 숨어 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재조명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나라 사랑에는 남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인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3·1 만세 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이외에도 간우회를 조직해서 일제에 저항했던 조산원이자 신채호 여사의 부인이었던 박자혜,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 박에스터,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주역이었던 이광춘, 광복군 여군 군번 1번이었던 신정숙 등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1.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 속에 녹아 있는 독립 의지와 나라 사랑

유관순은 3·1 독립 만세 시위로 독방에 갇혀 고깃국과 밥으로 동료들을 배신하라는 일제의 회유에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남자현은 대한의 독립 의지를 손가락을 자른 피로 써서 세상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곽낙원은 아들 김구와 독립운동가 동지들이 지켜 온 의리와 굳은 나라 사랑을 손자가 이어가도록 가르칩니다. 김구 선생의 종아리를 때리면서까지 독립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채찍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굳은 의지와 나라 사랑 정신은 본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2. 역사의 주체로 드러나는 여성상

일제 강점기 동안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나라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조마리아는 여인네들이 하는 독립 운동의 뒷바라지 자체가 나무의 뿌리와 같이 무엇보다 중요한 나라 사랑임을 알고 가르쳤으며, 자신의 능력대로 나아가 독립운동에 앞장설 것



을 장려합니다. 박에스더나 최용신은 교육으로 여성과 모든 백성들이 세상의 힘이 되라고 말합니다. 정정화나 신정숙은 군자금을 나르고 독립군 여군으로서 당당하게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속에는 묵묵히 뒤에서 어려움을 참고 이기는 어머니의 모습도 있으며, 과감하게 여성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나아갔던 진취적인 여성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들의 여러 모습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좋은 귀감이 될 것입니다. 223인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자세도 배우고, 진정으로 옳은 삶의 도리는 무엇이며, 위기를 겪을 때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81주년 이봉창의사 의거 기념식



일왕에게 폭탄을 던져 한민족의 자존과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이봉창 의사의 의거 81주년 기념식이 지난 1월 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회장 문국진) 주관으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최완근 서울지방보훈청장과 광복회원,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렸다.

1901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 의사는 1931년 1월 중국 상하이(上海)로 건너가 백범 김구 선생이 결성한 한민애국단에 가입했으며, 이듬해 1월 8일 도쿄 경시청 정문 앞에서 육군 관병식에 참석하러 가던 히로히토(裕仁) 일왕 일행에게 폭탄을 던졌다.

비록 목표는 이루지 못했으나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1930년대 의열투쟁의 선봉이 되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 의사는 1932년 10월 10일 이치가야(市谷) 형무소에서 32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정부는 이 의사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김상옥의사 서울시가전 승리 90주년 기념대회

지난 1월 22일 서울 종로구 효제초등학교에서 (사)김상옥·나석주의사기념사업회의 주관으로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인 김상옥 의사의 서울시가전 승리 90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이 날 기념식은 정양성 국가보훈처 차장과 독립운동관련 단체 대표, 광복회원, 효제초등학교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업회장의 감사장 수여와 대회사에 이어 국가보훈처 차장, 광복회장의 기념사 및 효제초등학교 학생대표의 선배 할아버지 김상옥의 사계 올리는 글, 합창,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열단원으로 활동했던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일본 경찰과 교전 중 순국한 독립운동가다.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윤익중, 신화수, 정설교 등 동지들과 함께 비밀결사조직인 혁신단(革新團)을 조직하고 기관지 혁신공보(革新公報)를 발행해 국민들의 독립정신을 고취했다.

김상옥은 1920년 10월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김구, 이시영, 조소앙 등 임시정부 요인들과 교류하면서 의열단에 가입했다.

1922년 안홍한, 오복영 등과 함께 서울에 잠입한 김상옥은 이듬해인 1923년 1월12일 밤 일제식 민통치의 근간이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해 수명을 부상시켰고, 1월22일 일본 경찰과 교전 끝에 순국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눈물,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의 눈물,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홍영표 국회의원과 본회가 주최하고, 광복회와 (사)의병정신선양회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이며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낸 이상룡 선생의 증손인 이항중 후손, 독립유공 애국지사유족회 대

표이며 이원근선생의 손자인 이승봉 후손, 그리고 의병전문 연구가이신 이태룡 박사가 ‘독립유공자 후손의 삶’에 대해 사례를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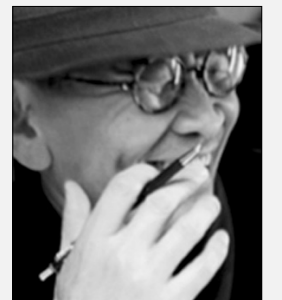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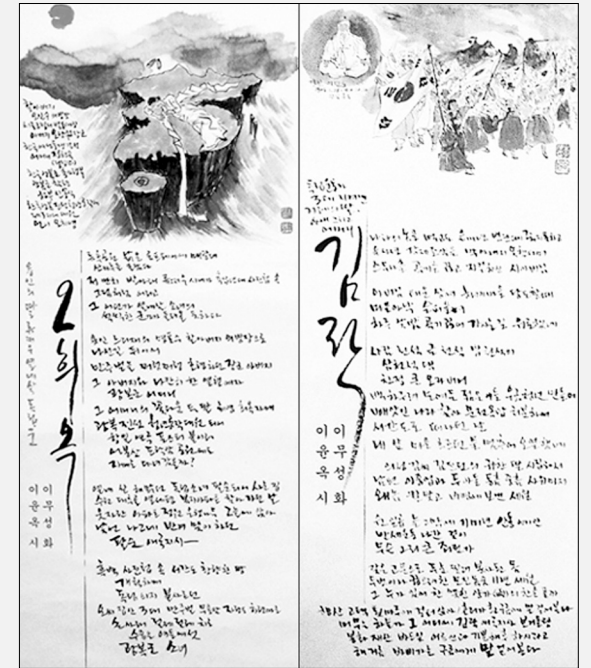
홍 의원은 “독립 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쳐 헌신했는데, 후손들의 삶은 가혹하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본인 및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내놓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 94돌 3.1절 기념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서간도에 들꽃 피다>시화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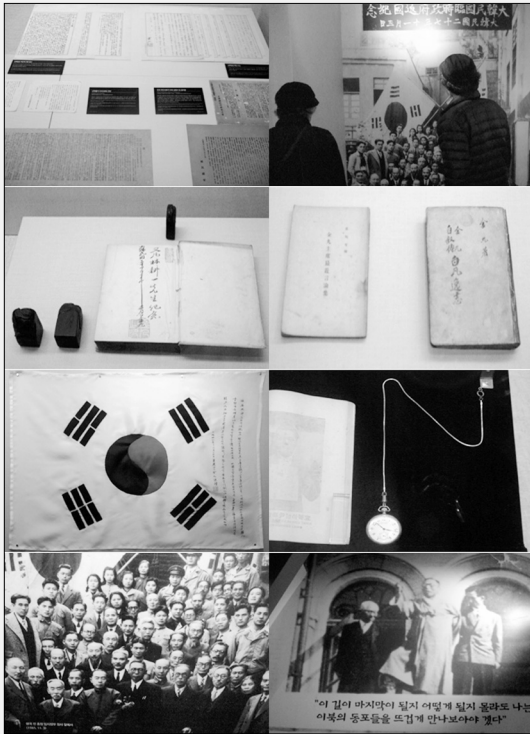
이번 94돌 3·1절을 기념하며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드높던 탑골공원 부근의 종로구 인사동에서 그동안 사회의 조명을 받지 못한 항일여성독립운동가 223분 가운데 30분을 기리는 뜻 깊은 시화전 <서간도에 들꽃 피다>가 지난 2월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월 5일까지 개최되었다. 한국문화사랑협회(회장 김영조) 주최, 서울시 종로구(구청장 김영중)·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 후원으로 열린 이번 시화전은 본회 이사인 이운옥 시인이 항일여성독립운동가에 바치는 헌시를 쓰고, 일생을 정리한 시집 『서간도에 들꽃 피다』에 실린 30여 편의 시에 한국화가 이무성 화백이 정성껏 그린 시화를 선보였다.

특히 이번 시화전의 특징은 영어, 일본어, 한시, 번역본이 함께 전시되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의 잔 다르크를 알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서간도에 들꽃 피다> 시화전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암흑기를 오로지 조국의 독립만을 위해 온몸을 내던지신 한국의 위대한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을 다시 되새겨볼 수 있었다.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 경교장 64년 만에 개방



그동안 제대로 보존되지 못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인 사적 465호 경교장(京橋莊)이 3년여에 걸친 원형복원을 마치고 3월 2일부터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경교장은 1945년 11월 중국에서 환국한 임시정부가 청사로 사용하던 곳으로 김구 선생 서거 이후 미군 주둔지, 주한 대만 대사관저 등으로 사용되다 1967년 고려병원(현 강북삼성병원)이 사들여 병원 건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역사적 유적인 경교장을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과 시민사회의 문화재 지정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시와 삼성병원이 오랜 협의를 거쳐 소유는 그대로 두고 전체 공간만 복원하는데 합의한 끝에 64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번에 복원된 경교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토지면적 396㎡의 건물이다. 광복

후 귀국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1945년 12월 처음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했던 귀빈식당, 김구 선생의 집무실과 침실, 국무위원회가 열렸던 응접실 등이 당시 모습으로 복원됐다. 2층 복도에는 김구 선생이 주한미군 방첩대 요원이던 안두희가 쓴 총탄을 맞고 서거할 당시의 총탄 자국도 재현했다.

경교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08-1
문의 : 02-2001-2779

2013년 독립정신 산악회 첫 산행 일정안내

2013년도 독립정신 산악회(회장 이호헌)는 인왕산 시산제를 시작으로 첫 산행을 시작한다.

올해 산행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씩 계속되며, 자세한 일정안내는 본회 홈페이지(www.kopogo.com)을 통해 공지된다.



- ♣ 산행일정 : 2013년 3월 23일(토) 오전 10시 30분
- ♣ 산 행 지 : 인왕산
- ♣ 집합장소 : 사직공원
- ♣ 교통편
 - 지하철 - 경복궁역(3호선) 1번 출구 하차
 - 버 스 - (지선)7025, (간선)171, 601, 606, 706, 708, (광역)9703, 9706, (마을버스)종 로 05 탑승 → 사직공원 하차

◆ 축하드립니다 ◆

민족문제연구소 제 4대 함세웅(본회 부회장) 이사장 취임



지난 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제 4대 함세웅(본회 부회장) 이사장 취임식이 열렸다.

초대 이돈명 변호사, 2대 독립운동가 조문기 선생, 3대 김병상 신부에 이어 4대 이사장을 맡게 된 함세웅 신부는 민족문제연구소와 1991년 설립 때부터 지도위원 후원회장을 맡는 등 오랜 인연을 맺어왔다.

함세웅 신부는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르바노 대학교에서 신학석사로 사제서품을 받았으며, 그레고리오 대학교 교부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교수 재임 경력을 가지고 있다. 1974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창립에도 참여했으며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인권위원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 주었고, 평화신문, 평화방송 창립 초대 사장도 역임했다.

이 밖에도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민주개혁국민연합 상임대표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원장, 인권의학연구소 이사장도 맡고 있다.

이 행사의 참석자들은 함세웅 신부의 취임으로 역사가 바로서고 정의가 살아나는 새로운 희망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함세웅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였다.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3년 1월, 2월 회비납부자 명단◆

회원명	1월	2월	회원명	1월	2월	회원명	1월	2월
강만길		20,000	박인석	10,000	10,000	이 철	10,000	10,000
강재욱	20,000	2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학노	20,000	20,000
강찬모	20,000	2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학호	30,000	10,000
곽태원	50,000	50,000	반병률	10,000	10,000	이항중	30,000	30,000
권경업	50,000	50,000	해진스님	10,000	10,000	이해준	20,000	20,000
권상윤	10,000	10,000	백낙청	10,000	10,000	이화순	30,000	30,000
권순갑	20,000	20,000	백영미	10,000	10,000	이호현	20,000	20,000
권영관	10,000	10,000	변병식	100,000	100,000	이후삼	10,000	10,000
길사원	10,000	10,000	서영훈	30,000	30,000	임재경	10,000	10,000
김경애	10,000	10,000	서홍관	30,000	30,000	임진택	5,000	5,000
김광림	30,000	30,000	성인제약(주)	100,000	100,000	임형진	10,000	10,000
김광재	5,000	5,000	신명식	10,000	10,000	장두원	20,000	20,000
김동현	10,000	10,000	신영연	10,000	10,000	장팔순	10,000	10,000
김봉현	30,000	30,000	신영한	10,000	10,000	전창일	20,000	20,000
김삼웅	10,000	10,000	신준수	20,000		정동익	30,000	30,000
김선교	10,000	10,000	심재권	30,000	3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성곤	10,000	10,000	안효진	10,000	10,000	정범구	10,000	10,000
김성록	10,000	10,000	양인선	10,000	10,000	정재경	10,000	10,000
김소중	10,000	10,000	양진호	10,000	10,000	정지완	5,000	5,000
김숙정	50,000	50,000	엄기남	10,000	10,000	정철승	30,000	30,000
김연실	10,000	10,000	엄승훈	10,000	10,000	정환기	10,000	10,000
김영방	10,000	10,000	오성근	10,000	10,000	조기식	10,000	10,000
김영일	10,000	10,000	오승숙	10,000	10,000	조명숙	10,000	10,000
김용수	5,000	5,000	오은주	20,000	20,000	조세현	10,000	10,000
김원규	10,000	10,000	오정수	20,000	20,000	조영빈	15,000	5,000
김 위	20,000	20,000	우상호	30,000	30,000	조용준	30,000	30,000
김위현	50,000	50,000	유기수	10,000	1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윤수	30,000	30,000	유은숙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유원목	10,000	10,000	조준표	10,000	10,000
김재홍	10,000	10,000	유종하	10,000	1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정경	10,000	10,000	윤경자	30,000	30,000	주철기	30,000	30,000
김정인	10,000	10,000	윤영소	10,000	10,000	차영조	10,000	10,000
김종규	10,000	10,000	윤종순	5,000	5,000	천정배	10,000	10,000
김정록	50,000	50,000	윤한옥	10,000	10,000	최낙현	20,000	20,000
김종배	20,000	20,000	이건용	10,000	10,000	최문성	10,000	10,000
김준상	50,000	50,000	이계환	10,000	10,000	최문순	10,000	10,000
김중숙	10,000	10,000	이규중	30,000	30,000	최영진	10,000	10,000
김진경	10,000	10,000	이두희	30,000	30,000	최정식	10,000	10,000
김진모	20,000	20,000	이병윤		10,000	한의석		10,000
김진영	10,000	10,000	이상준	200,000	200,000	함세웅	30,000	30,000
김진현	50,000		이성배	10,000	10,000	홍순권	10,000	10,000
김판수	5,000	5,000	이영국	10,000	10,000	홍용희	10,000	10,000
김학근	10,000	10,000	이영숙	10,000	10,000	홍승현	10,000	10,000
김호진	10,000	10,000	이영후	30,000	30,000	황용만	5,000	5,000
김희선	10,000	10,000	이우재	10,000	10,000			
남만우	30,000	30,000	이원혁	100,000	100,000			
노웅래	20,000	20,000	이윤옥	20,000	20,000			
노시선	30,000	30,000	이응국	5,000	5,000			
노영택	20,000	20,000	이인석	10,000	10,000			
민향선	10,000	10,000	이일선	30,000	30,000			
박녹삼	10,000	10,000	이재선	5,000	5,000			
박두곤	10,000	10,000	이정재	50,000	50,000			
박양수	10,000	10,000	이종락	30,000	30,000			
박원표	50,000	50,000	이중찬	100,000	10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창복	20,000	20,000			
박의란	30,000	30,000	이창중	20,000	20,000			

2013년 1월, 2월 특별회비

회원명	1월	2월
(주)오도오티오	5,000,000	5,000,000
(주)아팩철강	3,000,000	3,000,000
한마음병원	3,000,000	
이동철	300,000	
송만섭	100,000	
송대경		50,000
한승동		100,000

•••••
정치경제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석간 내일신문을 보십시오! 명쾌한 해답이 나옵니다.

경영으로 자립한 신문
그래서 성역 없는 비판이 가능한 신문
바로 석간 내일신문입니다.

물가폭탄·전세대란·유가급등으로 체감민심은 바닥인데, 대통령 지지도는 40%에 가깝습니다. 체감민심과 대통령 지지도 사이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까? 석간 내일신문을 구독하십시오. 석간 내일신문은 2010년 한국조사학회의 조사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민심읽기에 정평이 나았습니다.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집니다. 미국·중국·러시아의 대선 또는 권력교체가 예정된 해이기도 합니다. 격변하는 2012년 정치정세, 누가 한국호의 미래를 이끌고 갈지 알고 싶습니까? 석간 내일신문을 구독하십시오. 석간 내일신문은 각종 선거보도에 서 가장 정확한 예측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경제적 독립으로부터 나온다’. 2009년 세계신문협회 총회에서 나온 명제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내일신문은 국내 중앙일간지 중 올해까지 15년 연속 흑자를 낸 유일한 신문입니다. (주)내일신문은 2010년 현재 액면가의 259%를 주주에게 배당한 ‘경영에 강한 신문’입니다. 내일신문이 쌓아온 경영적 성과는 ‘성역없는 보도’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주)내일신문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석간내일신문 외에도 지방화 시대 지역사회 생활정치의 주역인 지역주민들을 위한 **24개 지역내일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에서도 볼 수 없는 생생한 지역정보, 바로 내일신문의 자랑입니다. (주)내일신문은 대학생 대상 발행부수 1위, 열독률1위인 **대학내일**과, 주부들을 위한 **미즈내일**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시대
내일신문은 여러분의 밝은 내일을 안내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석간 내일신문과 함께 하십시오.